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 연구I : 도덕적 감수성

- ▶ 연구책임자 : 박균열(경상대학교 교수)
- ▶ 공동연구자 : 홍성훈(여주대학교 교수)
서규선(서원대학교 교수)
한혜민(Stanford대학교 박사과정)
- ▶ 연구보조원 : 김연중(경상대학교 박사수료)

발 간 사 ■ ■ ■

최근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패와 기업의 부정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입시위주의 경쟁체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도덕적 가치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창의인성 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2009년 「지역 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 활용방안 연구」를 통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 활동의 연계를 위한 기본적인 구상을 발표하였고, 2010년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를 통하여 두 제도의 원활한 정책연계를 위한 사례연구와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와 더불어 인성의 측면, 특히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의 목적은 표준화된 한국형 청소년용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판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도덕성 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생활지도를 위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는 3개 년도에 걸쳐 추진하는 다년연구입니다. 올해는 그 1년차 연구로 총괄보고서 1권과 도덕성 하위영역인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관련 4권의 하위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2차년도와 3차년도 연구를 통한 정밀한 표준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보고서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 수준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도덕 및 윤리교육과 도덕성 함양 프로그램개발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 재 연 드림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도덕 감수성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도덕 감수성은 J. Rest가 창안한 4구성요소모형(The Four Component Model) 중의 제1요소에 해당되며, 특정 상황 속에 내포된 도덕적 문제를 잘 지각하고, 상황을 해석하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도덕 감수성의 하위요소로 사실지각 감수성, 결과지각 감수성, 책임지각 감수성으로 선정하고, 이를 가치갈등을 담고 있는 세 가지의 딜레마를 통해 측정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두 가지 기준에 의해 허용 반응자를 제거했는데, 높은 수준의 기준에 의하면 내적 일치도는 .84로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세 가지의 하위요소에 대한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한 개의 딜레마가 부적절 문항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서 제거하게 되었다. 검사지에 활용된 딜레마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에서는 예비 연구인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딜레마 스토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딜레마 구성원리를 일부 보완해서, 최종 검사지 시안을 제작하고자 한다.

주요어: 도덕성, 청소년도덕성, 한국청소년 도덕성 진단도구, 4구성요소모형, 도덕적 감수성

연구 요약

1. 연구 목적

- 미국의 도덕심리학자인 James Rest가 제시한 4구성요소(Four Components: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의 개념을 토대로, 한국청소년의 도덕성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 개발
- 그 중에서 특히 도덕적 감수성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임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선행연구에서의 도덕적 감수성 측정 도구개발은 주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측정 연구는 극히 드물어, 체계적인 도덕성 개념의 틀 속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도구를 개발함.
- 연구방법은 질문지 초안 개발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 타당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초안이 마련되고 난 이후에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하고, 통계적 기법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 보정을 위한 조치를 함

3. 연구대상

- 서울소재 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총262명을 대상으로 실시
- 중학생은 116명이며, 고등학생은 146명임
- 남학생인 123명, 여학생이 139명임

4. 주요 연구 결과

- 검사지 구성: 딜레마 주제를 선정하여 내부 토의를 거쳐 3가지 확정하였으며, 2가지는 예비로 개발함
- 문항구성은 각 딜레마마다 6문항(3개 하위요소×2개문항) 구성
-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5점 만점이며, 총18개 문항이어서, 감수성 지수 만점은 90점임
- 허위반응점검은 각 딜레마별로 감수성 검사지 6개 문항 중에 2개를 정-반 문항으로 설정하여, 그 차이 정도를 기준으로 허위 반응을 걸러냄
- 신뢰도 점검은 내적 일치도(Cronbach' α), 요인분석을 중심 실시
- 타당도 점검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내용타당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며, 관련있는 도구와의 비교를 통해 준거타당도를 높임
- 흥미도와 이해도를 문항에 포함하여 다층 분석을 위한 기회 마련
- 집단별 통계분석에서는 학교급별, 성별, 학교급별과 성별 상호작용, 부모학력에 따른 비교, 종교, 친구수, 도덕과목 흥미도에 따른 비교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이를 토대로 도덕적 감수성 향상요인을 찾아냄
- 타지수와의 상관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함. p-지수와는 낮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동기화 및 품성화 지수와는 의미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

5. 정책적 제언

- 신뢰도와 타당도 보장을 위해 지수산출과 병행하여, 지수간의 관계매김의 알고리즘을 구축해야 함
- 문항 자체의 불성실 답안 점검을 위한 노력 강구
- 국제적 타당도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외국학자 초청 토론회 개최
- 지수개발후, 연단위 전면적 의식조사 및 메타 정보 생산을 위한 예산 편성 건의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배경 및 연구내용	4
II. 이론적 배경	7
1. 도덕성의 정의: 인지·정서·행동적 측면의 통합	9
2. 4-구성요소 모형(Four Components Model)	11
3. 도덕적 감수성의 하위 요소	13
4. 선행연구 개관	14
III. 연구대상 및 방법	23
1. 연구 대상	25
2. 하위 요소 선정	26
3. 감수성 검사지 개발의 기본 방향 및 절차	27
IV. 연구 결과	29
1. 검사지 구성 내용	31
2. 허위 반응 점검	35
3. 신뢰도 및 타당도 점검	37
4. 집단별 통계분석	55
5. 타지수와의 상관성 분석	64
V. 논의 및 결론	69
1. 요약 및 결론	71
2. 활용방안 및 정책방안	74
3. 2차년도 세부 연구 계획(종합)	74
참 고 문 헌	77
부 록	83

표 목 차

〈표 II-1〉 발달의 수준과 단계에 따른 도덕판단의 분류	9
〈표 II-2〉 검사유형과 사용된 인권 항목	21
〈표 III-1〉 연구대상자 분포	26
〈표 III-2〉 도덕적 감수성 하위요소	26
〈표 III-3〉 청소년 도덕성 지수개발을 위한 전원회의 소집 현황	27
〈표 III-4〉 도덕적 감수성팀의 1차년도 연구 개요 및 절차	28
〈표 IV-1〉 도덕 감수성 검사지 문항 구성 및 채점 방식	34
〈표 IV-2〉 〈기준 1〉 적용시의 제외 대상 및 통계분석 대상	36
〈표 IV-3〉 〈기준 2〉 적용시의 제외 대상 및 통계분석 대상	37
〈표 IV-4〉 주성분분석에 의한 VARIMAX방식 요인분석 결과	39
〈표 IV-5〉 요인수 4개로 제한한 주성분분석에 의한 VARIMAX방식 요인분석 결과 ...	40
〈표 IV-6〉 요인수 3개로 제한한 주성분분석에 의한 VARIMAX방식 요인분석 결과 ...	41
〈표 IV-7〉 Direct Oblimin방식 요인분석 결과	42
〈표 IV-8〉 요인수 4개로 제한한 Direct Oblimin방식 요인분석 결과	43
〈표 IV-9〉 요인수 3개로 제한한 Direct Oblimin방식 요인분석 결과	44
〈표 IV-10〉 상황지각 감수성의 요인분석 결과	46
〈표 IV-11〉 결과지각 감수성의 요인분석 결과	47
〈표 IV-12〉 책임지각 감수성의 요인분석 결과	47
〈표 IV-13〉 도덕적 감수성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종합	48
〈표 IV-14〉 〈기준 1〉 집단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9
〈표 IV-15〉 〈기준 2〉 집단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50
〈표 IV-16〉 허위 반응 제외시의 신뢰도 분석	51
〈표 IV-17〉 “심부름 딜레마” 제외시의 신뢰도 분석	52
〈표 IV-18〉 선행 검사지의 내적 일치도	52
〈표 IV-19〉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력의 상관계수	53
〈표 IV-20〉 긍정적 반응자수	54

〈표 IV-21〉 학교급별 분석 결과	55
〈표 IV-22〉 성별 분석 결과	56
〈표 IV-23〉 학교급별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 기술통계치	56
〈표 IV-24〉 학교급별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변수: 감수성 총점)	57
〈표 IV-25〉 부학력 비교	60
〈표 IV-26〉 모학력 비교	60
〈표 IV-27〉 종교에 따른 도덕적 감수성 비교	61
〈표 IV-28〉 친구수에 따른 도덕적 감수성 비교	61
〈표 IV-29〉 도덕과목 흥미도에 따른 도덕적 감수성 비교	62
〈표 IV-30〉 도덕과목 흥미도와 학년간의 상호작용 효과 기술통계치	62
〈표 IV-31〉 도덕과목 흥미도와 학년간의 상호작용 효과(변수: 감수성 총점)	62
〈표 IV-32〉 도덕적 감수성의 향상요인	63
〈표 IV-33〉 각 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66
〈표 IV-34〉 각 지수(하위요인포함)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67

그림 목 차

【그림 IV-1】 도덕적 감수성에 대한 학교급*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	58
【그림 IV-2】 도덕적 감수성(상황지각)에 대한 학교급*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 ·	58
【그림 IV-3】 도덕적 감수성(결과지각)에 대한 학교급*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 ..	59
【그림 IV-4】 도덕적 감수성(책임지각)에 대한 학교급*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 ..	59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배경 및 연구내용

제 I 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¹⁾

2009년 12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창의성과 인성을 급변하는 세계의 변화에 개인이 적응할 수 있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된다고 보아 학교별로 이러한 능력들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이러한 교육정책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의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미래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21세기 글로벌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핵심 역량으로서 창의성과 함께 인성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이유는 창의적이고 유능한 능력만으로는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불완전하며, 도덕성이 올바르게 확립된 인성적 측면에서의 성숙이 절대로 필요하며 올바른 인성의 틀 속에서 창의성이 발휘되어야만 글로벌 인재로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청소년들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도덕성 발달 지표와 검사도구의 개발이 동반되어야 한다. 차별화된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발달수준에 비추어 체계적이고 타당한 도덕성 교육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덕성은 지금껏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 등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었지만,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최종 목표로 하는 연구는 없었다. 도덕적으로 사고(판단)하고 느끼는 것도 결국 도덕적 행동으로

1) 본 연구보고서는 J. Rest의 도덕성에 대한 4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의 상황에 맞는 청소년의 도덕성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이 4구성요소의 개념 중 도덕적 감수성(moral sensitivity)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요소들과 이론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작성된 다음의 보고서의 서론 및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상당부분 중복되는 바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이인재 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판단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이인재 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품성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박병기 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동기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연결되어야만 학문적으로든 교육적으로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도덕·윤리 연구의 기본 목표나 방향은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있어야 하며, 따라서 도덕적 행동에 관련된 제반 심리학적 과정 변인을 중심으로 도덕성을 측정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관여하는 심리적인 변수인 도덕적 판단력, 도덕 감수성(민감성), 도덕 동기화 그리고 도덕적 품성화 등을 측정하는 표준화 도구를 개발하여 청소년 교육과 지도를 위한 국가 수준의 시계열적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표준화된 한국형 청소년용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형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여, 국가 수준의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 또는 윤리 지수를 측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 교육이나 상담, 생활지도를 위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도덕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크게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로 설정하여, 이 4가지 각각의 개념과 이에 속하는 주요 요소들을 추출하고, 이들 각각의 요소들의 발달적 특성을 파악한 후, 이들이 한 인간의 전체적인 도덕성 발달, 즉 도덕성 지수를 타당하게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국적 상황에 부합한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도덕적 감수성 관련하여 표준화된 한국형 청소년용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에 중점을 둔다.

2. 연구의 배경 및 연구내용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도덕성의 기초와 토대를 굳건히 형성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그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덕교육은 도덕적 지식의 전달에만 치중한 것이 사실이다.

지식이나 사고가 결여된 행동은 맹목적이지만, 행동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식이나 사고는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지식이나 사고는 반드시 행동과 연결되어야 하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도덕 연구와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도덕적 지식이나 사고보다는 행동의 표출에 있어야 한다.

일찍이 서양의 소크라테스와 동양의 왕양명(王陽明)이 지행합일을 주창한 이래로, 도덕적 지식이나

사고(판단)와 도덕적 행동과의 관계는 항상 수많은 논의와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지(知)만으로 행(行)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은 누구든 공감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과정이나 변인을 제시한 Rest(1983)의 4-구성요소 모형은 도덕성 연구나 교육에서 주목받고 있는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도덕 감수성(moral sensitivity)이란 Rest(1983)의 모형에서 도덕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제1요소를 뜻하는데, 이는 특정 상황 속에 내포된 도덕적 이슈들을 지각하고 상황을 해석하며, 자신의 행동 결과가 타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동안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을 종합하면, 사람들은 비교적 간단한 도덕적 사태를 지각·해석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타인의 필요와 복지에 대한 민감성에 있어서도 현저한 개인차가 발견되는데, 바로 이런 차이들은 도덕적 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Rest, 1983, p. 559).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을 도덕적 사태로 지각·해석하지 못한다면 도덕적 행동은 일어날 수 없게 된다. Rest는 이에 대하여, 1964년 미국 뉴욕시에서 일어난 ‘Kitty Genovese 사건’을 예로 들면서, 방관자 효과(bystander’s effect)의 개념으로 이를 설명한다(Rest, 1983, p. 559). 그것은 도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낮에 한 여성(Kitty Genovese)이 강도에게 30분 동안이나 폭행을 당해 숨지기까지, 38명의 이웃사람들이 이를 목격하면서도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당시 목격자들에 대해 면담한 결과, 그들은 모두 그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몇몇 사람은 연인들 사이의 공연한 다툼으로 생각하고 간섭하기 꺼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타인의 필요와 복지에 대한 심각성이 부족해도 도덕적 행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복지에 미칠 가능한 결과들에 주목하는 데 있어서 개인차가 있는데, 이러한 민감성의 유무는 당연히, 도덕적 행동의 표출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도덕적 감수성은 제2요소인 도덕적 추론(인지) 능력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능력이라 볼 수 있고, 실제의 측정 결과에서도 두 요소 간에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Bebeau 등, 1985). 이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는 미네소타대학 치과대학의 Bebeau 등(1985)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고, 그 타당도와 신뢰도 역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Rest(1983)가 여러 심리학적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견해낸 도덕적 감수성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은 비교적 간단한 상황을 해석할 때조차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과, 타인의 필요와 복지에 대한 민감성에 있어서 사람들 간에는 현저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인지적 추론능력은 연령 증가에 따라 발달한다는 점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도덕 감수성에 대한 측정 연구는 그동안 전문직 윤리(professional ethics)의 관점에서 주로 의사와 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측정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 연구진은 제1차 연도에서 청소년용 도덕 감수성 검사지를 신규 제작하여 그 기초적인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타당화 및 표준화 연구를 통해 2, 3차 연도에서 실제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도덕성의 정의: 인지·정서·행동적
측면의 통합
2. 4-구성요소 모형
(Four Components Model)
3. 도덕적 감수성의 하위 요소
4. 선행연구 개관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도덕성의 정의: 인지 · 정서 · 행동적 측면의 통합

도덕성은 지금까지 주로 세 영역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인지발달론이 중시하는 도덕적 사고(인지)와 정신분석학이 강조하는 도덕적 정서, 그리고 행동주의 학습이론이 주목하는 도덕적 행동이 그것이다.

도덕성 발달이론을 처음 주창한 콜버그(Kohlberg, 1958)는 도덕성 개념을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도덕적 사고(판단) 능력으로 정의하고, 보편·불변적이고 불가역적인 순차성을 지니는 6개의 단계를 제시한 바 있다([표II-1] 참조).

표 II-1 발달의 수준과 단계에 따른 도덕판단의 분류

수준	도덕판단의 기반	발달의 단계
I	도덕가치는 사람이나 표준에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類似물리적 사건에, 사악한 행위에, 또는 유사 물리적 욕구에 귀속한다.	단계 1. 복종 및 처벌 정향(orientation). 우월한 힘내지 권능에 대한 자기중심적 존경, 혹은 좋은게 좋다는(trouble-avoiding)태도, 객관적 책임 단계 2 순수 이기주의 정향. 자기의 욕구를 때로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도구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이다. 각 행위자의 욕구 및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상대주의에 대한 각성. 소박한 평등주의, 그리고 상호성 및 교환에 무게를 둬
II	도덕가치는, 훌륭하고 정당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서 즉 인습적 명령과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서 성립한다.	단계 3. 착한 아이 정향. 다른 사람을 돕고 기쁘게 해주고 승인을 얻으려는 정향, 당연한(natural) 요컨대 모두가 하는대로 따라가는 식의 역할 행동 그리고 의도성에 의거한 판단. 단계 4. 권위와 사회질서 유지 정향. “의무수행”에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존경 표시 및 사회질서 유지 그 자체에 무게를 둬. 타인의 응당한 기대에 따름.
III	도덕가치는, 공유되거나 공인된 표준, 권리, 의무에 대한 자아의 동조에서 성립한다.	단계 5. 계약맺음과 법준중 정향. 협약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 기대나 규칙이 지닌 임의적 요소를 분별해냄 혹은 그것의 출발점이 무엇이여야 하는가를 인식함. 계약, 타인의 권리 내지 의지의 존중, 다수의 복지 등의 견지에서 의무를 규정함. 단계 6. 양심 혹은 원리 정향. 현실적으로 제약을 주는 사회규칙쪽에 뿐만 아니라 논리적 보편성 및 일관성에의 호소를 담고 있는 선택의 원리쪽에 무게를 둬. 행위의 지도력인 양심에 그리고 상호존중 및 신뢰의 무게를 둬.

출처: Kohlberg(1967: 172-173), Kohlberg, 김민남 · 진미숙 역, 『도덕발달의 심리학』, 교육과학사, 2000[1984], pp.44-45 재인용.

그러나, 도덕성은 도덕적 사고나 정서, 행동 중 그 어느 하나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 뛰어난 추론(사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때때로 세련된 추론이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감추거나 방어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감정이입이나 죄책감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이입의 능력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데 중요한 동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감정이입은 오히려 도덕적 행동을 저해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또한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 해서 반드시 도덕적이라 정의할 수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도한 죄책감은 비정상적인 신경증만을 유발할 뿐, 높은 도덕적 이상의 경지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행동의 동기나 의도가 아닌, 행동 그 자체가 도덕성을 보장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한다 해서 모두 도덕적이라 말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돕는 행동만으로 도덕적일 수 있다면, 소화를 돕는 위장 박테리아의 활동이나 해로운 자외선을 걸러 주는 오존층의 역할도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동의 결과만으로 도덕성이 정의된다면, 남을 해치기 위해 음식에 독약을 넣은 것이 그의 위장병을 고쳤을 때 그것도 도덕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Rest, 1983, pp. 556~557).

따라서 이제, 도덕성이나 도덕 교육의 연구에서 사고나 정서, 행동의 세 측면을 따로 나누어 접근하기보다는 각 측면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도덕적 행동을 중심적 위치에 놓고 도덕적 사고나 정서가 그것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도덕적 행동을 중시하는 것은 도덕성 연구나 도덕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어디까지나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도덕적 추론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복지에 미칠 결과나 영향에 대해 아무리 민감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인 도덕적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사고(인지)만으로 도덕적 행동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도덕적 사고와 정서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도덕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인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대한 예언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성 연구 분야에서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주창한 대표적 연구자들로는 Lickona와 Rest를 들 수 있다. 통합적 인격교육론자인 리코나(Lickona, 1991:53)는 도덕성을 인지적 도덕성, 정의적 도덕성, 행동적 도덕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덕성 요소들이 결합되어 궁극적으로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Lickona는 통합적 관점의 도덕교육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도덕적 선(善)을 알게 하는 것에만 치중한 인지발달론적 관점과 선을 직접 행하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 간의 통합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훌륭한 인격은 선을 아는

것(도덕적 지식)과 선을 열망하는 것(도덕적 감정),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도덕적 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교육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옳은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고자 원하며, 그러한 도덕적 지식과 감정을 효과적인 도덕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도록 도덕적 판단·감정·행동의 능력을 모두 갖춘, 완전한 도덕 행위자를 길러 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추병완, 1999, pp. 58~59).

한편, 콜버그의 이론적 입장을 이어 받은 레스트(Rest, 1983)는 도덕적 사고(인지)와 정서, 행동에 관하여 콜버그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는 도덕성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때 그들이 서로의 복지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원리이자 안내’ 라고 정의하면서(문용린, 1988, p. 137), 도덕적 사고(인지)가 아니라 도덕적 행동에 주목한다. 그는 도덕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4가지의 심리적 과정(psychological process)을 제시하면서, 도덕적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도덕적 감수성(제1요소), 도덕적 판단력(제2요소), 도덕적 동기화(제3요소), 도덕적 품성(제4요소) 등의 4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도덕성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도덕적 행동이 실제로 표출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도덕적 사고나 정서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모두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관여하는 심리적 과정으로서만 의미가 있어야 할 것이다.

레스트의 4-구성요소 모형은 그래서 교육적 시사점이 크며, 따라서 청소년 도덕성 진단 연구는 도덕적 판단력보다는 도덕적 행동의 표출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2. 4-구성요소 모형(Four Components Model)

이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도덕성을 인지 측면(판단력)에서만 보지 않고 정서와 행동의 측면까지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인지발달론자인 Rest가 이러한 모형을 제시한 것은, 도덕성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도덕성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모형의 궁극적인 관심은 한 개인이 도덕적 행동에 이르게 되는 여러 심리적 과정들을 밝히는 데 있기 때문에, 관심의 초점은 도덕적 인지가 아니라 도덕적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하나의 틀 속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도덕성을 연구하는

전통적인 세 이론인 인지발달론(인지 측면)과 행동주의(행동 측면), 그리고 정신분석학(정서 측면)을 종합하려는 이론적 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모형에 의하면, 한 개인의 도덕적 행동은, 첫째 도덕적 상황의 인식 및 해석, 둘째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한 추론, 셋째 도덕적 동기화, 넷째 도덕적 행동의 실행 등의 네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도덕적 행동의 실패는 위 네 가지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요소에 문제가 있을 때 야기된다.

도덕적 행동의 표출 과정에서 필요한 제1요소는 도덕적 감수성(moral sensitivity)이다. 이는 특정 상황 속에 내포된 도덕적 이슈들을 지각하고 상황을 해석하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이나 결과를 미칠 수 있을지를 미리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다.

어떤 상황을 도덕적 사태로 지각·해석하지 못한다면 도덕적 행동은 일어날 수 없게 된다. 타인의 필요와 복지에 대한 심각성이 부족해도 도덕적 행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제2요소는 도덕적 판단(moral judgment)이다. 제1요소에서 가능한 행동의 경로들과 그것이 타인에 미칠 영향이나 결과에 대한 인식(지각)이 이뤄지고 난 후, 제2요소에서는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요소는 도덕적 사고(인지)를 지칭하는데, 이는 Kohlberg의 이론 체계에서 도덕성으로 간주되던 것이지만, Rest의 모형에서는 단지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설명하는 여러 요소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 요소의 측정에는 Kohlberg가 개발한 주관식 인터뷰 검사인 MJI와 이를 객관화한 Rest의 DIT가 있고, 최근에는 전문인의 도덕성을 별도로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교사의 도덕성을 측정하는 Chang(1993)의 TTMR(Test of Teacher's Moral Reasoning)과 간호사의 도덕성을 재는 Crisham(1981)의 NDT(Nursing Dilemmas Test)가 개발된 바 있다.

제3요소는 도덕적 동기화(moral motivation)이다. 제1요소에서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 이슈를 가려내고 그것의 해결이 타인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헤아릴 수 있고, 제2요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의 경로들이 정당하고 정의로운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해서 도덕적 행동이 곧바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제3요소에 의해 도덕적 가치를 다른 가치, 예컨대 경제·사회·종교적 가치들보다 더 우위에 두려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이뤄졌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Bebeau 등(1993)에 의해 개발된 PROI(Professional Role Orientation Inventory)를 들 수 있는데, 이 도구는 전문직 종사자의 역할 개념(role concept)의 측정을 통해 그가 도덕적 문제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평가하려는 도구이다.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설명하는 마지막 제4요소는 도덕적 품성(moral character)인데, 이 요소는 자아 강도(ego-strength)와 인내심, 용기 등의 하위 특성들을 포함한다. 한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민감하고 바람직한 도덕적 판단을 잘 하며 도덕적 가치를 다른 가치들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더라도, 그가 만일 외부 압력에 쉽게 굴복하거나 쉽게 용기를 잃고 좌절한다든가, 의지가 약하든가 하면 도덕적 행동은 할 수 없게 된다.

도덕성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있어야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덕성을 진단하는 연구에서도 도덕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심리적인 과정이나 요소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은 도덕적 행동의 표출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과정이나 요소들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도덕성 연구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3. 도덕적 감수성의 하위 요소

도덕 감수성을 더욱 자세히 나누어 하위 요소를 규명해내려는 시도들을 살펴보면, 먼저 Akira 등(2004)은 도덕 감수성을 자율성과 대상자의 권리, 자애(복지)와 무해(無害), 정의와 맥락적 특성의 세부분으로 나눈 바 있고, Sadler(2004)는 타인의 반응이나 감정을 해석하기, 사건의 원인과 결과 및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기, 그리고 감정이입과 타인의 역할채택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Sadler(2004)의 주장은 Rest(1986)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Rest는 도덕 감수성의 하위 요소를 구분하면서 먼저 어떠한 상황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가능한 일련의 행동들을 추측하며 행동의 결과가 다른 상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능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역할채택 능력과 공감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타인에게 어떻게 미치는가를 고려하기 위해서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도덕 감수성의 하위요소 구분과 맥을 같이하여 Volker(1984; 문용린, 2002: 6-7에서 재인용)는 카운슬러의 도덕적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검사(Moral Sensitivity Rating Scale)를 개발하였다. 그는 도덕 감수성의 하위 요인으로 (1)중요한 사실에 대한 지각, (2)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한 지각, (3)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책임에 대한 지각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세 요인들이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먼저 중요한 사실에 대한 지각(perception of the critical facts)은 사람이 개인들, 집단, 기관, 사회 간의 상호관계를 알고, 원인과 결과 관계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행동이

미칠 가능한 결과를 상상하고 전문적 실천행위를 안내하는 윤리강령과 법령을 알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실지각 활동은 도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적 문제를 규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첫째 단계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의 범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영향을 받을 다양한 측면들을 인식하고, 결정에 정당하게 영향을 줄 맥락적이거나 역사적인 요인들에 대한 민감성뿐만 아니라 주어진 문제들에 적용될 수 있는 가치나 원칙들의 범위에 대한 민감성을 포함한다(MacDonald, 2002).

둘째, 다른 사람에게 미칠 결과에 대한 지각(perception of the consequences to others)은 행위자 자신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에게 미칠 행동의 가능한 결과를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이러한 개념들은 사실에 대한 지각과 순서상으로 위계적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가능한 해로운 결과를 상상할 수 있으려면 사례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지각해야 하고, 가능한 행동 방침의 효과를 추정하려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자신의 책임에 대한 지각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야 함을 말한다.

이처럼 Volker(1984)가 제시한 세 가지 하위요소는 이후의 많은 연구들의 토대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요소들이 도덕적 감수성의 하위요소로서 적합하다고 보고 그대로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4. 선행연구 개관

1) 미네소타 치과대학의 연구사례

미네소타 치과대학에서는 M. Bebeau 교수가 중심이 되어 1981년 미국구강보건기금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치과윤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4-구성요소 모형을 바탕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4년간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실시된 점에서 인상적이었고, 많은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미네소타 치과대학의 윤리교육과정은 4년에 걸쳐 총 43시간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수업활동은 4-구성요소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었다. 학생들의 실제 수행은 타당화된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되었고, 자기 평가(self-assessment)를 실시하여 학생 개인의 수준에 따라 피이드백을

제공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개원한 치과의사의 연수교육에도 많은 부분이 활용되었다.

프로그램의 중간 또는 종료 시점에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가가 실시되었는데, 4-구성요소 중 1, 2, 4요소를 측정하였다. Bebeau 등(1985)은 제1요소인 도덕 감수성의 측정을 위하여 치과윤리감수성 검사(DEST, Dental Ethical Sensitivity Test)를 제작하여 실시하였는데, 이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검증되었다.

한편, Bebeau와 Rest(1982)는 DEST의 타당도와 신뢰도의 입증을 위해 다음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채점자 사이의 채점일치도는 84.7~88%로 나타났다.

둘째,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윤리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개인차가 확인되었고, DEST는 임상교육의 효과로 인한 기관 수준의 차이도 민감하게 측정해내었다.

셋째, 윤리적 이슈들을 인지하는 데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윤리적 감수성은 교육을 통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윤리적 감수성은 도덕판단(추론) 능력과는 차이가 있었다.

미네소타 치과대학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적용된 세 요소의 측정은 신뢰롭게 이루어졌고, 치과대학생과 개원의를 측정한 결과, 큰 개인차가 확인되었다.

둘째, 한 사람이 어느 한 요소에서 높은 능력을 지녔다고 해도 다른 요소에서도 그렇다고 보기 어려웠고, 이처럼 개인 내에 존재하는 강점과 약점이 윤리적 의사결정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이 네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의 결핍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Rest의 주장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설계에서도 각 요소들이 빠짐없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미네소타 치과윤리 교육과정은 각 요소들이 모두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다른 윤리강좌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례중심 교육이 도덕적 판단력은 향상시킬 수 있지만 윤리 감수성 등 다른 요소의 향상에는 기여할 수 없다는 사실과 차이나는 부분이다.

Ernest(1990)는 DEST를 토대로 하여, 노인전문 치과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딜레마들을 활용한 윤리적 감수성 검사(GDEST)를 개발하였다([부록 1] 참조). 이 검사는 노인 환자의 특성, 전문가의 책임 등 2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DEST와 마찬가지로 3점 척도로 채점되었다. DEST와 GDEST는 측정 방식이 비슷하다. 이를테면, 학생들은 비디오나 테이프 등의 시청각 자료를 통해 치과의사들이 실제 진료 장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접하게 되는데, 이 딜레마를

통해 환자와 의사, 보호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극 중의 치과 의사의 역할을 맡아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응답을 하는데, 이 응답이 녹음되어 채점 자료로 활용된다.

연구진들은 구두반응과 지필반응 등 다양한 양식을 사용하여 실험을 하였는데, 구두반응이 학생들의 의도를 추정하는 데 가장 유용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구두반응을 서면으로 전사한 후 이를 개원의사들과 함께 개발한 채점 매뉴얼에 따라 채점하였다. 채점의 중요한 준거는 학생이 상황에 제시된 환자의 특성을 인식했는지,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인식했는지 등이다.

2) McNeel 등의 측정 연구(1992)

미네소타 대학 치과대학생의 도덕 감수성을 측정한 Bebeau 등(1985)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덕 감수성 측정도구이다. 이 검사는 대학생들이 흔히 경험하는 일상적 딜레마를 제공하고 거기서 도덕적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의미있는 주제를 대상으로 도덕적 지각 능력을 측정한 것이다. 이 검사를 위하여 먼저 대학생에게 일어나는 복합적인 윤리 문제를 주제로 하여 10분 내외의 라디오 드라마 4편을 제작하였는데, 드라마 주제는 시험부정 행위, 학습 문제, 인종문제 알코올 남용 등이었다.

학생들은 드라마를 듣고 난 후 개별적인 검사를 받았다. 즉, 그들은 드라마 상황에서 알아차린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녹음하여 매뉴얼에 따라 채점하는 방식이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몇몇 이슈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둘째, 강간과 같은 몇몇 이슈에 대해선 도덕적 지각이 상당히 낮았다. 즉 58%의 여성이 이 문제를 지각한 반면, 남자는 22%만이 이를 지각하였다.

전반적으로, 이 검사는 학생들이 도덕 감수성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민감해지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술들을 익히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3) Akira 등의 연구(2004)

이 연구에서는 일본 의과대학생의 도덕적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PIT: Problem

Identification Test)를 개발하여 측정하고, Rest의 DIT를 사용하여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력 간의 상관관계도 검증하였다.

PIT는 피험자들에게 의료에 관련된 딜레마 스토리를 들려주고 각 딜레마에 들어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찾아서 진술하도록 한 다음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부록 2] 참조). 딜레마는 모두 3개인데, 수혈을 금지하는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인이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혈을 거부하는 상황, 미혼모인 보호자가 수술이 잘못될 경우 정신지체의 가능성이 있는 미숙아의 수술을 거부하는 상황, 시한부 노인 환자의 치료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등 3가지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딜레마 사례에 대한 피험자의 진술을 채점하기 위하여 자율성과 환자의 권리, 자선과 선행, 정의와 상황적 특징 등 3가지 하위요인이 활용되었는데, 각 요인마다 3, 4개의 채점기준을 정해 채점하였다.

PIT의 내적일치도는 전체 .68, 세 하위요인은 .66, .61, .56이었고 채점자 일치도는 .83~.90이었으며 재검사 신뢰도는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일본 의대생들의 도덕적 감수성은 도덕적 판단력과는 달리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함께 상승하다가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면서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력 사이에는 의미있는 상관이 확인되지 않았다.

4) 홍성훈의 연구(2000)

이 연구는 Kohlberg와 Rest로 이어지는 인지발달론적 도덕성 발달이론을 전문직 윤리(professional ethics)에 접목시킨 국내 최초의 프로그램 개입 연구로서, 전문직 윤리의 관점에서 딜레마토론을 통해 의과대학생들의 도덕성을 신장시킬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현장적용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과 본과생)은 영상매체를 통해 제시된 의료현장의 도덕적 갈등사례를 접하고 동료들과의 딜레마 토론에 참여하였다.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Rest의 이론적 입장과 4-구성요소 모형에 의거, 기존의 도덕성 개념인 도덕적 판단력(인지 측면)뿐만 아니라 도덕적 감수성(정서 측면)까지 포함시켰고, 행동적 측면에서는 도덕적 행동선택을 추가하였다([부록 3] 참조).

분석 결과, 이 프로그램은 의과대학생들의 도덕 판단력과 도덕적 행동선택을 변화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도덕 감수성의 경우에는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에서 토론참여 학생들이 영상매체를 통해 도덕 딜레마 상황을 접하고 동료들과 활발한 토론을 통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감수성 또한 도덕적 판단력과 함께 향상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력의 신장이 본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였고, 따라서 도덕적 감수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처치는 투입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제작, 실시된 의료인용 도덕민감성 검사(MEST: Medical Ethics Sensitivity Test)의 딜레마 스토리(주제: 태아 성감별)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어느 날 산부인과 의사인 닥터 김에게 30대 후반의 사촌 누나인 K씨가 찾아왔다. K씨는 매우 쑥스러워 하면서 자신이 임신 16주째라고 고백하였다. 그러면서 임신 중인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봐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미 딸을 셋이나 둔 K씨는 도저히 딸을 하나 더 낳을 수 없다고 한다. 시부모님 등 집안사람들의 눈총도 심하지만 경제적으로 딸 셋을 키우는 데도 허리가 휠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아들을 낳으면 시아버님이 재산을 좀 물려주실 눈치여서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한다.

현재 K씨의 입장은 딱하기만 하다. 5대 독자인 남편은 남편대로 성화를 부리고 있다. 아내인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도 몇 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고, 근래 들어서는 외박도 늘어나고 있다. 한 마디로 집안이 말이 아니다. K씨는 남도 아니고 사촌 누난데 한 번만 봐 달라고 조르고 있다. 닥터 김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이 딜레마 사례는 의대생을 위한 것으로 청소년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용 검사지에서는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 장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이슈들을 찾아내서 딜레마 형태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5) 문미희의 연구(2004)

이 연구는 도덕성 발달 연구의 성과를 인권교육에 접목시켜 사범대 학생의 인권의식 및 인권 옹호 행동을 발달시키기 위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Rest(1983)의 4-구성요소 모형에 근거하여 인권의식 및 인권행동의 심리적 과정을 분석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모형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추출하였다. 연구에서 추출된 요소들은 인권감수성, 인권추론 능력, 인권 가치에 대한 동기화, 인권행동 실천력인데, 이들은 인권 행동을 표출하는 네 가지 하위요소로 규정되었다([부록 4] 참조).

이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인권 항목은 유의미한 교육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인데, 각 항목에 대해 교직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딜레마를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딜레마 토론 수업을 진행하였다.

측정도구를 보면, 사범대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용 인권감수성 검사와 교직용 인권 감수성 검사를, 인권 추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판단력 검사(DIT)를, 인권 가치에 대한 동기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권가치 동기화 검사를, 인권행동 실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성 예견 검사를 제작,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먼저 인권 감수성 검사에서 일반 인권감수성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1에서 의미있게 상승하였으나 비교집단 2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교직인권감수성의 경우에는 실험집단에서만 상승하고 비교집단 1, 2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인권추론능력 검사에서는 실험집단에서만 상승하였고 비교집단 1, 2에서는 그러하지 않았다. 인권가치에 대한 동기화 검사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1에서 상승하였으나 비교집단 2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인권행동 실천력에서는 실험집단만 상승하고 비교집단 1, 2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6) 이지혜의 연구(2005)

이 연구는 의과대학생(329)을 대상으로 하는 도덕적 감수성 척도를 개발하고 측정함으로써 도덕적 감수성의 구성요소와 발달 경향을 분석하고, 도덕적 판단력과 관계를 규명한 것이다([부록 5] 참조).

이 연구에서 개발된 도덕 감수성 측정도구는 전술한 Akira 등의 연구(2004)에서 개발된 PIT를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변안한 것인데, 채점 기준 등은 변경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감수성의 구성요소를 확인한 결과, 타인복지 감수성, 사태지각 감수성, 결과예측 감수성, 역할채택 감수성 등이 나타났다.

둘째, 검사는 3개의 딜레마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그 속에서 도덕적인 문제들을 직접 찾아내도록 하는 방식(지필검사)으로 진행되었는데,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채점자간 일치도는 .95, 내적합치도는 .66으로서, 일반적인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대생과 일반대생 간의 도덕 민감성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학년 상승에 따른 도덕민감성의 추세를 확인한 결과 의대생과 일반대생 모두 저학년에서 중간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상승하다가 고학년 때 하락하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도덕민감성과 도덕적 판단력 사이에는 매우 낮은 상관이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7)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감수성 측정 연구(2002)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여 한국인의 인권의식 지표로서 인권 감수성을 진단하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한 것이다.(문용린, 2002) 인권 감수성의 하위요소로서는 전술한 다수의 선행 연구들처럼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감수성 등 3가지를 상정하고 측정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인권선언문과 유네스코 인권교육내용 분류표를 참조하여 초등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대학생 및 성인용 인권감수성 진단도구를 제작하고 734명을 대상으로 표준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5점 척도인 이 검사의 형식은 인권이 문제되는 갈등상황을 나타내는 에피소드를 제시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문항과 다른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에 대하여 중요도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표 II-2] 참조). 에피소드의 숫자는 초등생용 4개, 중학생용 6개, 고등학생용과 대학생 및 성인용 10개인데 그 내용은 문미희의 연구(2004)와 유사하였다.

검사에 필요한 시간은 30분 정도였다. 채점은 인권과 관련이 없는 다른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보다 인권에 관련된 문항에 더 높게 평정한 평정치를 합산하여 인권감수성 원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학생용에서 성인용까지의 검사는 신뢰도와 문항반응 분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용에서 성인용에 이르는 검사지는 신뢰로운 검사라고 볼 수 있다. 초등생용의 경우 3점 척도여서 반응이 더 편파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표 II-2 검사유형과 사용된 인권 항목

에피소드 제목	관련 인권 항목	초등 학생용	중학생용	고등 학생용	대학생 및 성인용
교동이의 고민	평등권	○			
없어진 학급회의	불법체포, 구금당하지 않을 권리	○			
자녀교육	아동의 신체의 자유권	○			
학급회의	평화, 연대권	○			
감원대상	평등권		○	○	○
김씨의 구속	불법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	○	○
장애인 학교	장애우 교육받을 권리		○	○	○
자녀교육	신체의 자유권		○	○	
CCTV	사생활권		○	○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	○	
진료자 명단	정신질환자 사생활권			○	○
공장건립	환경권			○	○
황판사의 고민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	○
려씨의 임금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	○
국가의료정보센터설립	사생활권				○
의사의 고민	장애우 신체의 자유권				○
가족회의	노인의 행복추구권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02: 153).

둘째, 중학생용에서 성인용까지의 검사는 내용타당도와 구인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올바르게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초등학생용은 구인타당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인권감수성 점수의 분포상에서 볼 때, 초등학생용에서 성인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검사가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권감수성 지수는 인권감수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잘 변별해주는 지수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연령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과 대학생 및 성인, 고등학생과 성인 간에만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이야기별 반응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야기별, 즉 인권 항목에 따라 인권감수성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사람들은 어떤 인권 항목은 예민하게 지각했지만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지각하지 못하는 항목들도 존재하였다.

여섯째, 성별 반응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과 대학생은 차이가 있었으나 그 외의 집단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특히 대부분의 집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결과지각에서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선행연구 종합

이상에서 도덕 감수성을 측정한 기존 도구들을 개괄한 결과, 주목할 만한 것은 측정대상과 방식이 모두 달랐다는 점이다.

먼저 측정 대상을 보면, Bebeau 등(1985)의 DEST, Akira 등(2004)의 PIT는 치과대학생, 홍성훈(2000)의 MEST 연구, 이지혜(2004)의 도구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McNeel(1992)의 도구는 일반대학생, 문미희(2004)의 도구는 사범대학생 등으로 대학생이라는 공통점은 있었지만 전공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측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딜레마 사례를 영상매체나 유인물로 제시하고 그에 관련된 윤리적 이슈들을 직접 찾아내는 방식(서술형)과 윤리적 이슈들을 진술문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중요도를 평정하는 방식(객관형)이었다.

본 연구의 측정대상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도구들과는 달리, 청소년들이 생활 현장에서 실제로 겪게 되는 딜레마 사례를 활용하는 검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측정 방식에 있어서는 해마다 수천 명을 측정해야 하는 본 연구의 여건을 볼 때,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딜레마를 제시하고 그에 관련된 윤리적 이슈들을 직접 찾아내는 서술형 검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딜레마 사례를 제공하고 그에 관련된 진술문의 중요도를 평정하는 객관형 지필검사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제 III 장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 하위 요소 선정
3. 감수성 검사지 개발의 기본 방향
및 절차

제 III 장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의 연구사례들은 모두 특정 전문직 분야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측정 연구이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사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전문직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이뤄진 측정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외적으로 최초의 청소년용 도덕적 감수성 측정 도구(Moral Sensitivity Test)를 개발하고,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1차연도 연구에서는 도덕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도덕적 갈등 및 문제 사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하여 감수성 딜레마를 선정하고 예비 검사지를 개발하여 타당화 연구를 수행하며, 3가지 하위요소를 측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단, 요인분석에 있어서는 하위요소가 명확치 않은 개념일 경우 다단계의 탐색적 요인분석이 필요하나, 도덕적 감수성의 경우는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통해 하위요소가 명확해진 점을 감안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다.²⁾

본 연구의 대상은 총 262명이며, 남학생은 46.9%, 여학생은 53.1%로서 여학생이 다소 많으나

2) 심리검사에 있어서, 대체로 검사지의 구성방법에는 유형론과 특성론이 있다. 유형론에 근거한 검사들은 주로 이론적, 합리적 검사개발법을 적용하는 반면에 특성론적 입장을 취할 경우 요인분석과 같은 경험적 검사구성방법을 적용한다(Kaplan & Saccuzzo, 1997, 김영환, 2010, p.260 재인용). 연역적 접근은 논리적-내용적 방법(logical-content strategy)과 이론적 방법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논리적-내용적 방법은 초기 성격검사들에서 자주 사용한 방법으로 안면타당도에 근거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문항을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기술하고, 이론적 방법은 특성의 심리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문항을 선정한다(김영환, 2010, p.260). 한편 경험적 방법은 검사를 구성할 때 자료수집과 통계적 분석에 초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준거집단과 정상 또는 통제집단을 구별해 주는 문항을 선정하는 준거집단방법(criterion-group strategy)과 요인분석을 통해서 검사문항의 의미를 결정하고 보다 단순한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요인분석방법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Anastasi & Urbina, 1997; Kaplan & Saccuzzo, 1997, 김영환외, 2010, p.260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의 연역적 접근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의 경험적 방법에 전적으로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각적인 타당도 확인을 위해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양자의 접근법을 동시에 동원하고자 한다. 다만 후자의 요인분석법은 참고용으로 동원된다.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도덕성 관련 측정 연구에서 성차는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분포는 [표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대상자 분포

학교급별	남	여	합 계
중학생	58 (50.0)	58 (50.0)	116 (100)
고등학생	65 (44.5)	81 (55.5)	146 (100)
합 계	123 (46.9)	139 (53.1)	262 (100)

2. 하위 요소 선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Volker(1984)가 제시한 세 요소가 도덕적 감수성의 하위요소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검사지를 제작하였다. 한국 청소년의 도덕 감수성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하위 요소를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표III-2] 참조).

표 III-2 도덕적 감수성 하위요소

하위 요소	주요 내용
상황지각 감수성	특정 상황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해석/지각할 수 있는 능력
결과지각 감수성	특정 행동의 결과가 관련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결과)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책임지각 감수성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행동할 책임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능력

본 연구에서는 도덕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도덕적 갈등 및 문제 사태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감수성 관련 딜레마를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의 세 하위요소를 탐색할 수 있는 진술문을 제시하고 위의 세 요소를 측정하였다.

3. 감수성 검사지 개발의 기본 방향 및 절차

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전체회의가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부록 6] 참조), 검사도구 개발 절차에 따른 전체적인 협조사항 및 질문지 구성, 통계처리 절차 등 이론과 실무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표III-3] 참조).

표 III-3 청소년 도덕성 지수개발을 위한 전원회의 소집 현황

차수	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 논의사항
1차	2011.5.6(금)	서울교대	총17명	- 레스트의 4구성 요소 명확화 - 도덕에 대한 개념 확인 - 검사 방식 - 기타사항
2차	2011.6.24(금) -25(토)	여주 남한강 콘도	총18명	- 검사도구 문제점 분석 - 예비검사 방안 - 청소년 도덕성 척도 개발을 위한 신뢰도/타당도 검증 계획서 - 예비설문조사 점검 양식 제작
3차	2011.7.16(토)	서울교대	총9명	- 허위문항 판단방법 - 채점방식 - 인구통계변인 - DIT관련 사항 - 기타 및 행정사항
4차	2011.8.21(일)	서울교대	총10명	- 도덕적 판단력 - 도덕적 감수성/동기화/품성화 - 기타사항 - 행정사항

이와 같은 총괄회의를 통해, 도덕적 감수성 검사지 개발팀은 공동보조를 맞춰서 자체 연구협의를 병행해왔다. 감수성 팀이 제시한 1차년도 연구의 개요와 절차는 아래와 같다([표III-4] 참조).

표 III-4 도덕적 감수성팀의 1차년도 연구 개요 및 절차

주요내용	세 부 내 용
도덕적 딜레마의 선정 및 제시	- 청소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도덕적 딜레마를 선정함(3개 정도) - 선정된 딜레마들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윤리전공 교수, 도덕 교사)의 검토 - 딜레마의 제시 방법: 지필 자료 * 감수성 검사의 경우 영상자료(드라마 형식)의 제시가 바람직하지만, 검사 제작 및 실시 과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필자료 쪽으로 검토
감수성의 하위요소 추출 및 검사문항 개발	- 하위 요소: 도덕성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차 선정한 것임 1) 상황지각 감수성 2) 결과지각 감수성 3) 책임지각 감수성 - 위의 3가지 하위요인을 바탕으로 도덕적 딜레마를 구성하고 검사 문항 개발 - 검사 문항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대다수 도덕 감수성 검사는 서술형(자유반응형 진술)을 취하고 있으나, 청소년 검사용 딜레마 상황은 전문직의 경우보다 단순하고 명료하므로 선택형 문항을 활용함 - 개발된 도덕딜레마와 검사문항을 활용하여, 도덕 전문가(윤리전공 교수 또는 대학원생, 도덕 교사 등)의 검토를 거침. - 세 하위요소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함
타당도 및 신뢰도 점검	- 도덕적 감수성을 지필검사로 짤 수 있는가는 매우 critical한 문제이나, 검사 실시의 효율성과 간편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지필검사의 형식을 취함 - 일반 청소년 vs 비행 청소년의 반응 비교: 일반 청소년의 점수가 비행청소년의 점수보다 더 높은지 점검 - 타 변인(도덕적 판단력)의 관계 검증: 도덕 판단력과 도덕 감수성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두 변인 사이에는 높은 수준보다는 보통이나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검증되어야 함

제 IV 장

연구 결과

1. 검사지 구성 내용
2. 허위 반응 점검
3. 신뢰도 및 타당도 점검
4. 집단별 통계분석
5. 타지수와의 상관성 분석

제 IV 장 연구 결과

1. 검사지 구성 내용

1) 딜레마 주제의 선정

도덕성 검사에서 활용되는 딜레마의 주제는 검사 대상자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것이어야 한다([부록 7] 참조). 본 연구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 중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딜레마를 구성하였다. 딜레마의 주제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빵셔틀 (딜레마 제목: 친구의 심부름)

내용:

자신보다 힘이 센 학생에게 강요당해 빵을 사오는 등 잔심부름을 하는 학생이나 혹은 그 행위 자체를 일컫는 개념으로서, 일종의 학교 폭력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임

딜레마 문안 :

철호는 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성격이 난폭하기로 소문이 나있다. 그래서 누구나 그의 눈치를 보고, 그의 말이라면 아무도 거역하지 못한다. 거역하면 그가 괴롭히는 바람에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철호가 점심시간에 영배를 찾았다. 영배는 철호와와는 정반대로, 온순한 성격에다 몸이 약하고 싸움도 잘 하지 못한다.

철호는 영배에게 배가 고프다면서 말하면서, 학교 앞 빵가게에 가서 빵을 사오면 좋겠다고 넌지시 말한다. 말이 부탁이지 강요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철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배는 잠시 고민에 빠진다. 눈 딱 감고 그냥 빵 한번 사다주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럴 순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영배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2) 숙제 베끼기 (딜레마 제목: 절박한 수행평가)

내용: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과제 해결을 위하여 도덕적 문제의식 없이 인터넷 상의 자료를 그대로 베끼고 있음

딜레마 문안 :

오늘은 국어 수행평가 과제를 검사받는 날이다. 노트 한 페이지에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내는 과제물이다. 그런데, 민지는 다른 과제 때문에 여태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금은 아침 조퇴시간이고, 국어 시간은 5교시..... 점심시간 때까지 다른 친구가 과제를 보여준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다행히 의견을 정리해서 내는 간단한 숙제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 과제물에서 단어만 몇 개 고쳐서 내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것이 확실하다.

마침 가장 친한 친구인 가형이는 과제를 다 해왔다. 꽤 잘 한 과제물이다. 게다가 가형이는 민지가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과제물을 보여주려고 한다! 가형이의 과제에서 몇 문장을 바꿔서 내면 될 것 같다. 이제 남은 시간은 4시간 남짓... 혼자 과제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이번 과제는 점수 배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다른 친구들은 흔히 하는 일 아닌가? 하지만 민지는 왠지 망설이고 있다. 민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3) 급식줄 새치기 (딜레마 제목: 점심시간)

내용:

점심 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서 앞쪽에 서있는 친구에게 합류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딜레마 문안 :

즐거운 점심시간. 수진이네 학교는 식당이 워낙 좁아서 빨리 가지 않으면 점심시간이 다 끝날

때 쯤에나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점심시간 종만 치면 모두들 전속력으로 식당으로 달려간다. 오늘, 하필이면 수진이네 반은 4교시 수업이 5분 쯤 늦게 마쳤다. 수진이는 가장 친한 친구인 정은, 지은이와 함께 미친 듯이 식당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이 줄을 서 있다.

마침 그 때, 그 줄의 중간 쯤에 아주 친한 다른 반 친구인 채원이가 눈에 띄었다. 수진이를 발견한 채원이는 저 멀리서 손짓을 하고 있다. 여기로 오라고.... 그것은 수진이에게는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보였다. 채원이 옆으로 간다면 약 20분 쯤은 빨리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밀린 과제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은, 지은이를 힐끗 보니 둘 다 그렇게 하자는 눈치다. 하지만, 줄을 서 있는 다른 애들 눈치가 보여서 망설이고 있는 수진이..... 수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4) 추가 확보 딜레마(2개)

위의 세 가지 딜레마 이외에 추가로 확보한 딜레마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추가 딜레마 1: “0.1초의 고민”

소영이는 내일로 다가온 과학 실험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분주하다. 움직이는 물체의 속력을 측정하는 간단한 과제물이었는데, 물체의 움직임을 백 번씩 반복한 다음에 걸린 시간을 구해서 속력을 계산하는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실험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반복 횟수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실험을 시작하면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간신히 과학실에 자리를 잡고 실험을 시작한 소영. 약 두 시간 동안 계속 된 반복 실험 끝에 결과물을 뽑아서 부랴부랴 집으로 왔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집에서 엑셀을 켜고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는 소영. 백 번을 반복하면서 얻은 소요시간을 평균낸 다음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학시간에 배운 내용대로라면 결과가 19.5~20.5 사이로 나와야 하는데 19.4가 나와 버린 것이다. 사실 19.5~20.5도 오차를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19.4는 분명 문제 있는 결과이다. 이대로 과제물을 낸다면 감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렇다고 다시 실험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눈 딱 감고 19.4만 19.5로 고쳐버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영이는 막상 숫자를 고치려니 무언가 찝찝한 느낌을 버릴 수 없었다. 소영이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추가 딜레마 2: “엄마, 불우이웃 돕게 이만 원만 줘”

지수는 예진이와 절친한 친구 사이이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한 달 전부터 놀이공원인 해태월드를 가기로 약속해 놓은 상태. 한 달 전부터 이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건만 약속을 하루 남긴 5월 4일 저녁, 뜻하지 않은 일이 터지고 말았다. 가지고 있던 용돈을 계산해보니 입장료보다 만 원 가까이 모자랐던 것. 용돈이 탄 지가 며칠 되지가 않고, 예진이에게 도움을 청하자니 예진이도 그렇게 형편이 좋은 친구가 아니었다.

문득 지수의 머리에 번뜩 아이디어가 스치고 지나갔다. 마침 학교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으고 있던 중. 엄마도 가정통신문을 아마 보셨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에게 이만 원을 받아서 학교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는 만원만 내고, 내일 예진이와 놀러 갈비용에 나머지 만원을 보태기로. 어쨌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는 것이니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집 사게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들킬 가능성도 없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 고개를 드는 찢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2) 문항 구성 및 채점 방식

감수성 검사는 심부름, 수행평가, 점심시간 등 세 가지 딜레마 스토리로 구성되며 각 딜레마마다 6문항(3개 하위요소x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므로 5점 만점이다. 총 18개 문항이어서 감수성 만점은 90점이 된다. 역코딩 문항은 총 7개로서 심부름 1, 6번, 수행평가 1, 3, 4번, 점심시간 3, 4번 문항이다. 도덕 감수성 검사지의 문항 구성 및 채점 방식은 [표IV-1]과 같다.

표 IV-1 도덕 감수성 검사지 문항 구성 및 채점 방식

딜레마 스토리	문항번호	감수성 하위요소	역코딩 여부	허위반응 체크문항	배 점
심부름	1번	상황지각	역코딩	1-3번 (상황지각)	각 문항 5점, 총 30점 만점
	2번	결과지각			
	3번	상황지각			
	4번	결과지각			
	5번	책임지각			
	6번	책임지각	역코딩		

딜레마 스토리	문항번호	감수성 하위요소	역코딩 여부	허위반응 체크문항	배 점
수행평가	1번	상황지각	역코딩	2-4번 (책임지각)	"
	2번	책임지각			
	3번	상황지각	역코딩		
	4번	책임지각	역코딩		
	5번	결과지각			
	6번	결과지각			
점심시간	1번	상황지각		1-3번 (상황지각)	"
	2번	책임지각			
	3번	상황지각	역코딩		
	4번	책임지각	역코딩		
	5번	결과지각			
	6번	결과지각			

2. 허위 반응 점검

감수성 검사지의 허위 반응 체크 방식은 다른 하위요소 검사들과 차이가 있다. 위 [표 IV-1]에서 볼 수 있듯이, 감수성 검사지는 6개 문항 중에 2개를 정-반 문항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정-반 문항 간의 반응 차이를 기준으로 허위 반응을 체크하였다.

물론 반 문항을 역코딩 하면 내용상 정 문항과 비슷한 내용이 되고, 이들 문항에 대한 반응의 차이(5점 척도상)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테면, “친구의 심부름”의 경우, 1번 문항(“친구를 위하는 일인데 해주면 서로 편하고 좋다”)과 3번 문항(“친구를 위하는 일이라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이 상황지각 감수성을 측정하는 문항인데, 3번 문항을 역채점하면 내용상 1번 문항과 비슷해진다. 따라서 1번 문항과 역채점된 3번 문항 간의 반응 차이가 크다면(3점 이상) 피험자는 허위 또는 무성의로 반응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세 번째 딜레마인 “점심시간”에도 해당되지만, 두 번째 딜레마인 “절박한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역채점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반 문항 간의 차이가 얼마일 때 허위반응으로 보는지의 문제가 있다. 5점 척도이지만 크게 보면 그렇다(긍정 반응), 그렇지 않다(부정 반응), 보통이다(중립반응)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차가 3점 이상(3점 또는 4점)일 때 긍정-부정-중립 반응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허위 반응으로 판단하였다.

물론 감수성 검사의 허위반응 체크 방식이 다른 검사지와 다른 부분에 대해, 예비검사 분석결과를 통해 수정여부를 결정하였다.

본 검사지에서는 정-반 문항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기준으로 허위반응자를 가려내어 통계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반 문항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기준으로 아래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기준 1: 3점 이상(3점 포함)이 세 딜레마 중 어느 1개에서라도 나타날 때

기준 2: 3점 이상(3점 포함)이 세 딜레마 중 2개 이상에서 나타날 때

1) <기준 1> 적용

먼저 1번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전체 262명의 연구대상 중 허위반응자는 115명으로 제외율은 43.9%이었고, 이를 제외한 통계분석 대상자는 모두 147명(56.1%)이었다([표IV-2] 참조).

표 IV-2 <기준 1> 적용시의 제외 대상 및 통계분석 대상

	중			고			합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연구대상(A)	58	58	116	65	81	146	123	139	262
허위반응(B) (통계제외)	21	25	46	37	32	69	58	57	115
제외비율 (B/A, %)	36.2	43.1	39.7	56.9	39.5	47.3	47.2	41.0	43.9
분석대상	37	33	70	28	49	77	65	82	147

고등학생의 제외율(47.3%)이 중학생의 경우(39.7%)보다 높고, 특히 고등학교 남학생의 제외율(56.9%)은 매우 높은 편이다. 허위반응자가 통상적인 연구 상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은 딜레마 사례 3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허위반응 체크에서 3점 이상이면 제외시키는, 비교적 엄격한 제외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2) <기준 2> 적용

딜레마 3개 중 2개 이상에서 3점 이상(3점 포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에 제외한다는 2번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전체 262명의 연구대상 중 허위반응자는 21명으로 제외율은 8.0%이었고, 이를 제외한 통계분석 대상자는 모두 241명(92.0%)이었다([표 IV-3] 참조).

표 IV-3 <기준 2> 적용시의 제외 대상 및 통계분석 대상

	중			고			합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연구대상(A)	58	58	116	65	81	146	123	139	262
허위반응(B) (통계제외)	5	6	11	5	5	10	10	11	21
제외비율(B/A, %)	8.6	10.3	9.5	7.7	6.2	6.8	8.1	7.9	8.0
분석대상	53	52	105	60	76	136	113	128	241

<기준 1>에서는 고등학생의 제외율이 중학생에 비해 상당히 높았지만 <기준 2>에서는 중학생의 제외율(9.5%)이 고등학생의 경우(6.8%)보다 높았다. 그러나 남녀 간 제외율의 차이는 <기준 1>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신뢰도 및 타당도 점검

1) 요인분석

(1) 요인분석 개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몇 개의 공통인자(common factor)를 통하여 각 변수들간의 존재하는 공분산 구조(covariance structure)를 쉽게 파악하도록 모형에 바탕을 둔 다변량 분석기법이다.³⁾

3) 강성현, 『SPSS 통계자료분석』, (주)통계정보, 2005, p.490.

모델별로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 최우법요인분석(Maximum-Likelihood factor analysis)이 있으나 주로 주성분분석과 공통요인분석을 이용한다. 이 두 모델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분석 목적에 따라 다르다. 정보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많은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요인의 수를 가능한 한 적은 수의 요인으로 줄이고자 할 때는 주성분분석을 사용하고, 변수들간에 내재하고 있는 차원이나 요인들을 알아내기 위한 분석은 공통요인분석을 사용한다.⁴⁾ 요인회전 방식에 따라, 직각회전과 사각회전이 있다.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에는 VARIMAX, QUARTAMAX, EQUAMAX가 있고, 반면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에는 인자들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각 인자간의 각도를 90도이외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회전하는 방법으로 OBLIMIN, OBLIMAX, PROMAX 등이 있다.

도덕적 감수성의 척도들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딜레마에 대한 각 6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결과에 대한 응답한 자료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실시하였다. 그 추출방법에 따라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성분분석에 의한 VARIMAX방법과 최대우도법에 의한 Direct Oblimin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회전방식에 따라 개개요인 적재값의 크기는 달라졌지만 각각 요인에 묶인 문항의 수나 문항 내용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도덕적 감수성에 대한 내용들은 서로 명백한 독립적인 차원이 아니며 요인간에 상관성이 있을 수 있다(intercorrelation).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상호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각 단계는 가장 최적한 요인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이론으로 연구팀이 정의된 요인수로 근접하는 지를 알아보았으며 다음으로 각 딜레마에 관계없이 이론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각 요인들이 적절하게 분석되는 지를 개별적으로 알아보았다.

먼저 요인수는 비회전요인에서 고유값을 1.0이상인 설정하여 가장 적절한 요인을 찾아보았으며 이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수를 이론으로 규명된 3개까지 변화시켜보았다.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① 전체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VARIMAX 회전방식)

기준1에 대한 전체 문항별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심부름 딜레마의 경우는 크게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며, 이중 심부름 2는 요인 3과 요인4에 공통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4) 김은정·박양규, 『SPSS 통계분석8』, 21세기사, 1998, p.333.

삭제대상이 될 수 있다. 수행평가 딜레마의 경우는 연구자들이 정의한 상황지각 감수성과 책임지각 감수성이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되고 결과지각 감수성만이 독립된 요인으로 구별되었다. 점심시간에 대한 딜레마는 상황지각 감수성과 책임지각 감수성은 통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자가 분류한 결과지각 감수성 중 문항 5번은 수행평가 딜레마의 결과지각 감수성과 통합되지만 6번 문항은 상황지각이나 책임지각과 유사한 요인으로 통합되었다. 기준2에 대해서는 기준 1보다 더욱 명확한 요인들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 즉 각 딜레마 별로 2개의 요인으로 구별되며, 각 딜레마별 1-4번 문항과 5-6번 문항이 분리되는 형태를 따르고 있다. 이 중 각 딜레마의 1-4번 문항은 모두 하나의 개별요인으로 구성되며, 수행평가의 5-6번, 점심시간의 5-6번 문항은 통합되어 하나의 변인으로 구성되었다([표 IV-4] 참조).

표 IV-4 주성분분석에 의한 VARIMAX방식 요인분석 결과

	기준 1					기준 2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심부름1	.058	-.065	.845	.084	-.056	-.075	-.109	-.010	.762	.130
심부름2	.059	-.010	.455	.601	-.141	-.043	.026	.397	.616	-.077
심부름3	.102	-.073	.867	.009	.034	.092	.068	-.072	.813	.137
심부름4	.065	.092	.660	.047	.141	.073	-.085	.043	.524	-.057
심부름5	.158	-.027	.071	.003	.851	.083	.000	-.003	.146	.858
심부름6	.102	.207	.030	.094	.841	.042	.138	.073	-.026	.883
수행평가1	.033	.813	-.022	.095	-.055	.060	.856	.035	-.034	-.064
수행평가2	.281	.805	-.029	.170	.210	.168	.779	.117	-.063	.237
수행평가3	.091	.852	.068	.051	.076	.197	.741	.161	-.081	-.015
수행평가4	.216	.806	-.053	.161	.083	.264	.496	.312	-.012	.142
수행평가5	.092	.217	-.067	.729	.078	.009	.335	.668	.046	-.024
수행평가6	.160	.354	-.063	.529	-.046	.117	.368	.492	.019	.019
점심1	.849	.212	.126	.155	.085	.822	.170	.207	.033	.023
점심2	.803	.052	.167	-.014	-.063	.789	.204	-.066	.110	-.041
점심3	.869	.182	.048	.121	.108	.825	.164	.226	-.003	.106
점심4	.672	.239	.026	.267	.311	.601	.151	.481	-.049	.229
점심5	.234	.014	.257	.617	.179	.200	.027	.662	.140	.044
점심6	.573	.052	-.062	.416	.237	.520	-.034	.616	-.044	.046
고유치	3.183	3.058	2.250	1.922	1.751	2.835	2.547	2.144	1.969	1.713
분산의 %	17.681	16.991	12.499	10.678	9.729	15.750	14.153	11.914	10.939	9.516
누적분산의 %	17.681	34.672	47.171	57.849	67.578	15.750	29.902	41.816	52.755	62.272

이를 요인 수를 4로 설정하여 다시 분석 한 결과 기준1에 대해서는 심부름 딜레마의 경우는 상황지각(1,2)과 결과지각(3,4)이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책임지각(5,6)만 개별적으로 분리된 변인으로 나타났다. 수행평가 딜레마의 경우는 모두 통합되어 하나의 변인으로 설정되지만 결과지각 감수성(5,6)은 아주 낮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점심시간 딜레마에서는 문항 5가 심부름 딜레마의 상황지각과 결과지각과 유사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변인들은 동일한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준 2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의 딜레마가 모든 6개의 문항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심부름 딜레마와 수행평가 딜레마는 기준1과 유사하였다([표 IV-5] 참조).

표 IV-5 요인수 4개로 제한한 주성분분석에 의한 VARIMAX방식 요인분석 결과

	기준 1				기준 2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심부름1	.033	-.076	.837	-.027	-.089	-.116	.742	.153
심부름2	.197	.144	.601	-.199	.101	.144	.696	-.119
심부름3	.058	-.108	.836	.073	.018	.018	.745	.198
심부름4	.039	.069	.641	.172	.068	-.081	.511	-.039
심부름5	.187	-.042	.058	.842	.096	-.016	.143	.851
심부름6	.146	.212	.036	.831	.088	.145	-.007	.861
수행평가1	.004	.806	-.026	-.024	.000	.817	-.097	-.003
수행평가2	.275	.811	-.022	.228	.149	.761	-.102	.276
수행평가3	.045	.823	.044	.119	.189	.740	-.110	.019
수행평가4	.206	.814	-.043	.102	.336	.550	.011	.134
수행평가5	.289	.418	.122	-.016	.262	.528	.197	-.119
수행평가6	.282	.491	.065	-.101	.285	.497	.112	-.036
점심1	.837	.221	.132	.083	.814	.171	-.002	.049
점심2	.746	.021	.134	-.047	.660	.117	-.003	.042
점심3	.853	.185	.048	.104	.829	.171	-.030	.125
점심4	.714	.285	.068	.287	.742	.255	.020	.181
점심5	.392	.172	.406	.106	.455	.220	.293	-.058
점심6	.676	.157	.034	.178	.736	.131	.080	-.042
고유치	3.489	3.371	2.408	1.707	3.447	2.889	2.050	1.711
분산의 %	19.383	18.729	13.378	9.485	19.149	16.049	11.387	9.504
누적분산의 %	19.383	38.111	51.489	60.975	19.149	35.198	46.585	56.090

연구자들이 이론을 중심으로 크게 3개의 요인으로 설정하였기에 요인수를 3으로 설정하여 요인분석을 다시 하였다. 그 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준1에 따라서는 심부름 딜레마의 1-4번문항, 수행평가 딜레마의 1-6번 문항, 점심시간 딜레마의 1-4번, 6번문항의 3개의 변인으로 구성되며, 심부름 딜레마에서 연구자가 책임지각 감수성으로 설정한 5,6번 문항은 점심시간 딜레마와 유사한 변인으로 구성되며, 점심시간 딜레마 중 5번 문항은 심부름 딜레마의 상황지각과 결과지각 감수성과 유사한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2에 따라서는 심부름 딜레마와 수행평가 딜레마는 두 개의 변인으로 구분되며, 점심시간 딜레마는 하나의 변인으로 통합되었다. 특히 심부름 딜레마 중 연구자가 책임지각 감수성으로 선정한 문 5-6번은 수행평가의 1-4번과 통합되며, 수행평가의 5-6번 문항은 점심시간 딜레마의 1-4번과 통합되었다([표IV-6] 참조).

표 IV-6 **요인수 3개로 제한한 주성분분석에 의한 VARIMAX방식 요인분석 결과**

	기준 1			기준 2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1	요인 2	요인 3
심부름1	-.003	-.078	.833	-.070	-.064	.744
심부름2	.070	.156	.637	.224	-.030	.550
심부름3	.063	-.112	.822	.056	.062	.742
심부름4	.090	.063	.613	.103	-.140	.459
심부름5	.535	-.059	-.035	-.071	.479	.478
심부름6	.487	.192	-.060	-.056	.627	.316
수행평가1	-.026	.806	-.025	.191	.653	-.248
수행평가2	.327	.815	-.028	.262	.767	-.122
수행평가3	.070	.820	.029	.346	.594	-.228
수행평가4	.210	.818	-.040	.426	.492	-.029
수행평가5	.239	.429	.148	.421	.310	.036
수행평가6	.195	.505	.102	.410	.341	-.001
점심1	.779	.254	.197	.800	.109	.020
점심2	.646	.053	.208	.643	.073	.020
점심3	.807	.218	.113	.796	.157	.026
점심4	.758	.306	.095	.728	.258	.072
점심5	.383	.184	.423	.524	.081	.214
점심6	.680	.180	.073	.742	.020	.060
고유치	3.652	3.456	2.480	3.870	2.590	2.133
분산의 %	20.289	19.202	13.776	21.498	14.389	11.848
누적분산의 %	20.289	39.491	53.267	21.498	35.886	47.735

주성분분석으로 추출하고 VARIMAX 회전방식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기준1에 대한 결과는 거의 딜레마별로 통합되는 경향이 매우 강해 이하분석에서는 딜레마별 분석이 아닌 연구자들이 설정한 요인별로 분석을 하였다. 기준2에 따라서는 각 딜레마의 5-6번 문항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립이나 다른 딜레마와 유사한 이유를 더욱 심도 깊게 확인해봐야 함을 알 수 있다.

② 전체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Direct Oblimin 회전방식)

다음은 최대우도법에 의해 추출된 요인분석 결과이며 이는 Direct Oblimin방식으로 회전을 실시한 결과로 구조계수행렬(structure matrix)를 제시하였다. 기준1에 있어서 심부름 2 문항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문항을 제외한다면 크게 두 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수행평가 딜레마에서도 문5가 다른 변인으로 분류되며 점심시간 딜레마의 경우도 문5가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문4가 여러 요인에 걸쳐서 많은 설명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삭제대상이었다. 기준2에 대해서는 심부름 4번문항은 각 요인에 대한 설명력이 낮아서 부적절한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기준1에서 다소 문제가 된 2번문항은 문1과 3과 통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평가 딜레마에서는 4-6번문항이 매우 부적절한 문항으로 요인1과 요인3에 공통적으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평가 딜레마의 각 요인들은 요인적재치가 음수로 나타나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함을 나타내었다. 점심시간 딜레마의 경우는 문 3, 4, 6번 문항이 요인1과 요인5에 대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문5만이 하나의 변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행평가 딜레마처럼 점심시간 딜레마의 문1-3은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IV-7] 참조).

표 IV-7 Direct Oblimin방식 요인분석 결과

	기준 1					기준 2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심부름1	.136	.775	-.060	-.004	.221	-.015	.128	.137	.657	.046
심부름2	.173	.426	.099	-.035	.588	.291	-.004	-.075	.538	-.047
심부름3	.180	.902	-.070	.085	.158	.016	.177	-.023	.738	-.129
심부름4	.158	.455	.074	.128	.270	.086	.000	.058	.347	-.031
심부름5	.241	.066	.066	.758	.102	.030	.687	-.053	.170	-.137
심부름6	.268	.028	.272	.754	.189	.123	.876	-.185	.016	-.113
수행평가1	.167	-.086	.711	.073	.197	.152	.044	-.809	-.090	-.216
수행평가2	.413	-.053	.874	.372	.337	.249	.291	-.779	-.063	-.326
수행평가3	.286	.007	.776	.178	.185	.353	.099	-.666	-.095	-.310

	기준 1					기준 2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수행평가4	.353	-.086	.829	.225	.308	.466	.200	-.485	.016	-.335
수행평가5	.275	.032	.347	.178	.449	.468	.047	-.412	.121	-.214
수행평가6	.247	.036	.401	.130	.377	.412	.080	-.404	.080	-.251
점심1	.899	.145	.371	.311	.417	.487	.166	-.313	.045	-.804
점심2	.672	.204	.190	.190	.233	.210	.085	-.281	.081	-.741
점심3	.913	.074	.335	.326	.358	.523	.235	-.313	.032	-.819
점심4	.703	.047	.420	.470	.494	.684	.295	-.351	.052	-.596
점심5	.350	.241	.203	.235	.606	.520	.090	-.239	.207	-.280
점심6	.564	-.027	.244	.367	.571	.704	.111	-.210	.062	-.483
고유치	3.805	1.956	3.506	2.092	2.456	2.712	1.629	2.838	1.516	3.057
분산의 %	21.140	10.865	19.478	11.622	13.646	15.068	9.052	15.765	8.421	16.981
누적분산의 %	21.140	32.005	51.483	63.105	76.752	15.068	24.120	39.885	48.306	65.287

이를 요인 수를 4로 설정하여 다시 분석 한 결과 기준1에 대해서는 심부름 딜레마는 VARIMAX방식처럼 문1-4와 5-6번 문항이 구별되는 형태를 가졌으며 수행평가 딜레마는 문 2와 문5는 부적절한 문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되었지만 부정적인 값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점심시간 딜레마에서는 문4는 여러 요인이 걸쳐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적절한 것이며 문5는 설명수준이 매우 낮았다. 그 외 문항들은 하나의 변인으로 통합되었다. 기준 2에 대해서는 심부름 딜레마에서는 문 4는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 5-6은 음수의 요인적재치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행평가 딜레마에서는 문4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문항들은 동일 요인으로 통합되었다. 점심시간 딜레마에서는 문 5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문항들은 하나의 변인으로 통합되었다. 요인4개로 한 경우에는 심부름 딜레마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되며 심부름 딜레마만 두 개의 요인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IV-8] 참조).

표 IV-8 요인수 4개로 제한한 Direct Oblimin방식 요인분석 결과

	기준 1				기준 2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심부름1	.140	.036	.807	.009	-.034	-.139	.134	.667
심부름2	.212	-.130	.450	.003	.160	-.013	-.085	.522
심부름3	.176	.046	.843	.093	.111	-.165	-.033	.718
심부름4	.175	-.097	.483	.135	.062	-.002	.049	.352

	기준 1				기준 2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심부름5	.261	-.094	.105	.744	.133	-.670	-.066	.177
심부름6	.298	-.296	.083	.768	.163	-.897	-.194	.021
수행평가1	.192	-.701	-.015	.066	.230	-.026	-.792	-.071
수행평가2	.450	-.883	.066	.353	.359	-.261	-.780	-.036
수행평가3	.304	-.767	.098	.166	.394	-.079	-.678	-.069
수행평가4	.380	-.833	.026	.210	.460	-.184	-.508	.039
수행평가5	.313	-.368	.106	.184	.364	-.049	-.423	.132
수행평가6	.278	-.416	.110	.130	.360	-.077	-.420	.097
점심1	.905	-.425	.286	.277	.805	-.107	-.382	.104
점심2	.661	-.232	.292	.153	.618	-.020	-.331	.131
점심3	.900	-.389	.218	.289	.838	-.175	-.385	.091
점심4	.728	-.472	.188	.446	.738	-.263	-.409	.095
점심5	.392	-.246	.315	.243	.431	-.087	-.269	.220
점심6	.591	-.297	.085	.356	.645	-.098	-.268	.093
고유치	4.034	3.747	2.209	1.990	3.777	1.545	3.093	1.529
분산의 %	22.412	20.816	12.273	11.056	20.981	8.585	17.185	8.496
누적분산의 %	22.412	43.228	55.501	66.556	20.981	29.566	46.751	55.246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크게 3개의 요인으로 설정하였기에 요인수를 3으로 설정하여 요인분석을 다시 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준1에 따라서는 심부름 딜레마 중 문 5,6번은 부적절한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수행평가 딜레마 중 문5는 설명력이 낮으며 그 외 2, 4번 문항은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점심시간 딜레마의 경우는 문 1과 문4번 문항은 부적절한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문항들은 하나의 변인으로 통합되었다. 기준2에 따라서는 심부름 딜레마의 경우 문 1-3번이 적절하며 수행평가 딜레마에서는 문 4는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심시간 딜레마에서는 문 3,4번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평가 딜레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IV-9] 참조).

표 IV-9 요인수 3개로 제한한 Direct Oblimin방식 요인분석 결과

	기준 1			기준 2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1	요인 2	요인 3
심부름1	.143	.802	-.037	-.032	.114	.672
심부름2	.217	.449	.125	.152	-.083	.490

	기준 1			기준 2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1	요인 2	요인 3
심부름3	.181	.842	-.040	.113	-.053	.720
심부름4	.183	.486	.106	.058	.049	.332
심부름5	.272	.126	.158	.170	-.139	.283
심부름6	.318	.107	.345	.212	-.262	.180
수행평가1	.214	-.011	.686	.229	-.754	-.052
수행평가2	.481	.081	.893	.370	-.800	.038
수행평가3	.330	.105	.759	.395	-.674	-.031
수행평가4	.408	.035	.830	.465	-.527	.092
수행평가5	.325	.114	.375	.359	-.426	.147
수행평가6	.291	.115	.417	.357	-.423	.116
점심1	.900	.296	.430	.801	-.393	.144
점심2	.656	.297	.236	.612	-.332	.146
점심3	.896	.228	.395	.842	-.403	.148
점심4	.739	.205	.495	.744	-.442	.174
점심5	.402	.324	.260	.428	-.281	.241
점심6	.596	.099	.317	.643	-.282	.125
고유치	4.159	2.247	3.832	3.809	3.194	1.649
분산의 %	23.104	12.481	21.288	21.159	17.745	9.161
누적분산의 %	23.104	35.585	56.873	21.159	38.904	48.064

최대우도법에 의해 추출하고 Direct Oblimin 회전방식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기준1에 심부름 딜레마는 문 5-6번은 하나의 새로운 변인으로 구성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삭제하여 구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행평가 딜레마와 점심시간 딜레마의 경우는 모든 6개의 문항이 하나로 구성되는 형태이지만 특히 수행평가 딜레마의 문5는 제외대상이며, 점심시간 딜레마의 문4는 제외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2에 따라서는 심부름 딜레마에서는 문4는 제외대상이며 문 1-3, 문5-6이 각각 두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평가 딜레마와 점심시간 딜레마는 전체를 하나로 통합된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평가 딜레마는 문4는 제외대상이며 문5-6은 설명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정이 요구된다. 점심시간 딜레마의 경우는 문 3,4번이 여러 요인에 걸쳐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삭제대상으로 고려된다.

③ 각 요인별 전체 스토리별 분석 결과

세 딜레마에 대해서 각 요소별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각각 기준1과 기준2에 대해서 직각회전(VARIMAX)와 사각회전(Direct Oblimin)방식으로 각각 실시하였다.

첫째, 상황지각감수성의 결과이다. 상황지각 감수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기준1과 기준2의 각 VARIMAX, Direct Oblimin 방식에서 모두 개별적인 딜레마별로 요인이 나뉘지는 것을 알 수 있다([표IV-10] 참조).

표 IV-10 **상황지각 감수성의 요인분석 결과**

	기준 1						기준 2					
	VARIMAX			Direct Oblimin			VARIMAX			Direct Oblimin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1	요인 2	요인 3
심부름1	.046	.919	-.013	.135	.724	-.055	-.070	-.114	.860	-.067	.898	-.171
심부름3	.095	.911	-.051	.163	.949	-.072	.092	.019	.870	.090	.566	-.029
수행평가1	.054	-.103	.897	.199	-.115	.807	.034	.902	-.048	.227	-.108	.881
수행평가3	.225	.041	.860	.343	.008	.735	.286	.816	-.051	.409	-.085	.632
점심1	.932	.105	.164	.829	.197	.338	.905	.124	.010	.748	.031	.300
점심3	.947	.047	.119	.997	.137	.295	.901	.163	.016	.914	.040	.326
고유치	1.830	1.698	1.587	1.883	1.496	1.401	1.726	1.534	1.502	1.627	1.149	1.402
분산의 %	30.502	28.306	26.444	31.376	24.927	23.350	28.765	25.562	25.025	27.117	19.147	23.360
누적분산의 %	30.502	58.808	85.252	31.376	56.303	79.653	28.765	54.327	79.352	27.117	46.264	69.623

둘째, 결과지각감수성 결과이다. 결과지각 감수성의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기준1에서는 심부름 딜레마와 점심시간 딜레마는 동일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수행평가 딜레마만 다른 변인으로 나타났다. 기준2에서는 VARIMAX 회전방법에서는 심부름 딜레마가 하나로 구성되며, 수행평가 딜레마와 점심시간 딜레마로 통합하여 하나의 딜레마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Direct Oblimin에서는 문항별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IV-11] 참조).

표 IV-11 결과지각 감수성의 요인분석 결과

	기준 1				기준 2			
	VARIMAX		Direct Oblimin		VARIMAX		Direct Oblimin	
	요인 1	요인 2	요인 1	요인 2	요인 1	요인 2	요인 1	요인 2
심부름2	.654	.222	.220	.461	.254	.633	.148	.307
심부름4	.748	-.229	.046	.349	-.137	.819	.001	.178
수행평가5	.171	.754	.470	.432	.734	.029	.428	.442
수행평가6	-.007	.835	.991	.197	.753	-.122	.995	.208
점심5	.705	.287	.231	.826	.574	.396	.250	.800
점심6	.464	.456	.378	.414	.667	.221	.422	.458
고유치	1.730	1.658	1.449	1.413	1.962	1.293	1.436	1.215
분산의 %	28.834	27.626	24.151	23.552	32.707	21.547	23.926	20.244
누적분산의 %	28.834	56.460	24.151	47.703	32.707	54.254	23.926	44.170

셋째, 책임지각감수성 결과이다. 책임지각 감수성의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심부름 딜레마만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며, 수행평가딜레마와 점심시간 딜레마가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2] 참조).

표 IV-12 책임지각 감수성의 요인분석 결과

	기준 1				기준 2			
	VARIMAX		Direct Oblimin		VARIMAX		Direct Oblimin	
	요인 1	요인 2	요인 1	요인 2	요인 1	요인 2	요인 1	요인 2
심부름5	.067	.893	.257	.847	.066	.870	.592	.203
심부름6	.222	.836	.401	.678	.146	.886	.999	.276
수행평가2	.876	.155	.921	.336	.656	.263	.290	.549
수행평가4	.857	-.011	.806	.180	.714	.109	.210	.604
점심2	.510	.111	.323	.231	.671	-.088	.020	.488
점심4	.692	.341	.565	.405	.767	.149	.271	.707
고유치	2.294	1.648	2.148	1.541	2.004	1.652	1.551	1.523
분산의 %	38.228	27.474	35.807	25.676	33.404	27.539	25.856	25.377
누적분산의 %	38.228	65.702	35.807	61.484	33.404	60.943	25.856	51.233

④ 탐색적 요인분석 종합

이상의 결과에서 여러 유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해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 근거해서 설정된 하위요인 3종류는 비교적 실제 조사결과에서는 정확히 부합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리어 각 딜레마 별로 특성이 너무 현저히 달라서 딜레마별로 독립성이 더욱 정확히 나타났다. 즉, 현재 도덕적 감수성 척도는 딜레마 선정에서는 별로 무리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절박한 수행평가와 점심시간에 대한 딜레마는 다소 공통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 연구에서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하위요인 구성에 있어서 서로 통합되는 패턴이 나타나 잠재되어 있는 하위요소들이 더욱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번 년도 연구에서는 이론에 근거한 연구이었기 때문에 실제 적용상의 문제점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차기년도 연구에서는 먼저 다양한 딜레마의 구성과 각 딜레마에 하위요인에 대한 더욱 폭넓고 많은 문항을 구성하여 더욱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형화된 유형을 정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표IV-13] 참조).

표 IV-13 도덕적 감수성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종합

이론근거 준거			각 요인별 분석			
			기준 1		기준 2	
하위요소	딜레마	번호	VARIMAX	D. Oblimin	VARIMAX	D. Oblimin
상황지각	친구의 심부름	1, 3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절박한 수행평가	1, 3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점심시간	1, 3	동일	동일	동일	수행평가(4)
	비고		점심시간(6)-삭제	수행평가(3)-제거		
결과지각	친구의 심부름	2, 4	심부름(2,4) 점심(5)	심부름(2) 점심(5, 6)	동일	모두 삭제대상
	절박한 수행평가	5, 6			통합	수행평가(6)
	점심시간	5, 6	수행평가(5, 6)	수행평가(6)		점심시간(5)
	비고		점심(6)-삭제	심부름(4)-삭제 수행평가(5)-삭제		수행평가(5)-삭제 점심시간(6)-삭제
책임지각	친구의 심부름	5, 6	동일	심부름(5)	동일	동일
	절박한 수행평가	2, 4	통합	수행평가(2,4)	통합	통합
	점심시간	2, 4		-		
	비고			심부름(6)-삭제 점심(2,4)-삭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감수성의 경우에는 선행 연구를 통해 하위요소가 명확해진 만큼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요인분석보다는 기존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인 요인분석”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검사에서는 <기준 1> 집단(N=147)과 <기준 2> 집단(N=241)에 대한 확인적인 요인분석을 각각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한편, 요인분석 결과에서 부적절 문항을 판별하는 기준은 통계분석을 위한 2차 워크샵에서의 논의를 통해 아래 두 가지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조건 1: p 값이 .05 이하는 우선적으로 제외한다.

조건 2: 첫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Beta 값이 .30 미만이면 제외한다.

먼저, <기준 1> 집단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IV-14]와 같다.

표 IV-14 <기준 1> 집단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stimate	S.E.	Beta	C.R.	P	비고
심부름1	← 상황	-0.021	0.089	-0.016	-0.237	0.813	부적절문항
심부름3	← 상황	0.099	0.076	0.087	1.308	0.191	부적절문항
수행평가1	← 상황	0.521	0.086	0.398	6.033	***	
수행평가3	← 상황	0.752	0.092	0.540	8.214	***	
점심1	← 상황	0.870	0.087	0.657	10.029	***	
점심3	← 상황	1.000		0.740			
심부름2	← 결과	0.426	0.095	0.335	4.501	***	
심부름4	← 결과	0.288	0.114	0.183	2.528	0.011	부적절문항
수행평가5	← 결과	0.936	0.140	0.527	6.703	***	
수행평가6	← 결과	0.832	0.130	0.499	6.406	***	
점심5	← 결과	0.916	0.136	0.532	6.744	***	
점심6	← 결과	1.000		0.704			
심부름5	← 책임	0.203	0.099	0.137	2.058	0.040	부적절문항
심부름6	← 책임	0.347	0.102	0.231	3.411	***	부적절문항
수행평가2	← 책임	0.721	0.111	0.473	6.480	***	
수행평가4	← 책임	0.844	0.117	0.539	7.195	***	
점심2	← 책임	1.000		0.584			
점심4	← 책임	0.980	0.113	0.701	8.683	***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결과 심부름 1, 3, 4, 5, 6 문항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준 2〉 집단에 대한 확인적인 요인분석 결과는 [표IV-15]과 같다.

표 IV-15 <기준 2> 집단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stimate	S.E.	Beta	C.R.	P	Label
심부름1	←	상황	-0.079	0.081	-0.068	-0.980	0.327	부적절문항
심부름3	←	상황	0.102	0.074	0.095	1.374	0.169	부적절문항
수행평가1	←	상황	0.440	0.082	0.362	5.366	***	
수행평가3	←	상황	0.650	0.085	0.501	7.605	***	
점심1	←	상황	0.958	0.076	0.779	12.628	***	
점심3	←	상황	1		0.818			
심부름2	←	결과	0.305	0.090	0.253	3.383	***	부적절문항
심부름4	←	결과	0.114	0.110	0.076	1.035	0.301	부적절문항
수행평가5	←	결과	0.888	0.137	0.508	6.489	***	
수행평가6	←	결과	0.858	0.129	0.522	6.636	***	
점심5	←	결과	0.890	0.131	0.535	6.785	***	
점심6	←	결과	1		0.704			
심부름5	←	책임	0.266	0.102	0.181	2.609	0.009	부적절문항
심부름6	←	책임	0.365	0.104	0.246	3.502	***	부적절문항
수행평가2	←	책임	0.680	0.110	0.459	6.165	***	
수행평가4	←	책임	0.796	0.116	0.523	6.841	***	
점심2	←	책임	1		0.593			
점심4	←	책임	0.993	0.112	0.744	8.880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준 2〉 집단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기준 1〉 집단의 경우처럼 심부름 딜레마의 문항 모두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딜레마는 2차년도 연구에서는 교체할 필요가 있다.

2) 신뢰도 점검

신뢰도 점검을 위해 내적 일치도(Cronbach' α)와 반분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내적 일치도를 하위요소별로 선출하되, 허위반응자를 제외시키는 두 가지 기준을 비교하였다. 허위 반응자를 제외할 경우의 신뢰도는 [표IV-16]과 같다.

표 IV-16 허위 반응 제외시의 신뢰도 분석

		문항수	전체 (N=262)	허위 반응자 제외	
				기준 1 (N=147)	기준 2 (N=241)
내적 일치도	상황지각	6	.51	.64	.56
	결과지각	6	.64	.64	.61
	책임지각	6	.65	.74	.68
	감수성 전체	18	.79	.84	.81
반분 신뢰도	상황지각	6	.289	.483	.483
	결과지각	6	.614	.702	.703
	책임지각	6	.483	.717	.689
	감수성 전체	18	.587	.717	.717

먼저 허위반응자 115명을 제외한 <기준 1>(N=147)을 보면, 전체 집단보다 내적 일치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황지각 감수성은 .51에서 .64로, 책임지각 감수성은 .65에서 .74로 크게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감수성 전체는 .79에서 .84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결과지각 감수성의 경우는 .64로서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허위 반응 체크 문항이 상황지각감수성(심부름, 점심시간)과 책임지각 감수성(수행평가)에 국한되었고 결과지각감수성은 빠져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딜레마 3개에 하위요소3개를 각각 하나씩 배치함으로써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다음, 허위반응자 21명을 제외한 <기준 2>(N=241)를 보면, 보다 엄격한 제외기준인 <기준 1>에 비해 내적 일치도가 어느 정도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결과지각 감수성(.61)은 전체집단(.64)보다도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3개의 딜레마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허위 반응이 나온 피험자를 제외하는 <기준 1>의 방식이 비록 많은 피험자가 제외된다는 단점은 있으나 크론바하 알파가 .84로서 가장 높기 때문에, 본 검사에서는 <기준 2>보다는 <기준 1>을 바탕으로 허위반응자를 가려내어 통계분석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 이는 반분신뢰도 검사에서 입증된다.

위의 요인분석 결과 심부름 딜레마의 문항들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문항들을 제외한 다음 내적 일치도를 다시 산출하였다. [표IV-17]은 <기준 1> 집단과 <기준 2> 집단을 대상으로 심부름 딜레마를 포함시킬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신뢰도를 비교한 것이다.

〈기준 1〉 집단이든 〈기준 2〉 집단이든 심부름 딜레마를 제외하였을 때 알파값은 높아졌다([표 IV-17] 참조). 물론, 〈기준 1〉 집단을 대상으로 심부름 딜레마를 제외했을 경우가 동일 조건의 〈기준 2〉 집단보다 높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기준 1〉 집단이든 〈기준 2〉 집단이든, 심부름 딜레마를 포함하든 제외하든 미세한 차이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80을 넘어서는 비교적 양호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반분신뢰도 결과에서는 심부름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2차년도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표 IV-17 “심부름 딜레마” 제외시의 신뢰도 분석

		전체집단 (N=262)		허위반응자 제외							
				기준 1 집단 (N=147)				기준 2 집단 (N=241)			
				심부름 포함		심부름 제외		심부름 포함		심부름 제외	
		문항수	a	문항수	a	문항수	a	문항수	a	문항수	a
내적 일치 도	상황	6	.51	6	.64	4	.73	6	.56	4	.71
	결과	6	.64	6	.64	4	.62	6	.61	4	.65
	책임	6	.65	6	.74	4	.73	6	.68	4	.66
	전체	18	.79	18	.84	12	.86	18	.81	12	.85
반분 신뢰	상황	6	.289	6	.483	4	.462	6	.483	4	.506
	결과	6	.614	6	.702	4	.534	6	.703	4	.590
	책임	6	.483	6	.717	4	.599	6	.689	4	.618
	전체	18	.587	18	.717	12	.617	18	.717	12	.661

또한, 본 검사지의 내적 일치도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다양한 분야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도덕적 감수성을 측정한 다른 검사의 수치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IV-18] 참조). 그러나 2차 연도 연구에서는 1차 연도 연구에서 드러난 심부름 딜레마 등의 문제의 해결을 통해 더 높은 내적 일치도를 확보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표 IV-18 선행 검사지의 내적 일치도

검사자(연도)	검사 대상	내적 일치도
Beau (1985)	미국 치대생	1학년=.61, 2학년=.78
Akira (2004)	일본 의대생	.68
홍성훈 (2000)	한국 의대생	.62
문미희 (2004)	한국 사대생	.83, .89
이지혜 (2005)	한국 의대생, 일반대생	.66

3) 타당도 점검

본 검사지의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와 준거 타당도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점검되었다. 먼저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도덕성의 발달 또는 측정을 연구한 도덕심리학 전공학자 5명으로부터 검사지의 내용과 검사 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다음, 준거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덕적 판단력 점수와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IV-19]와 같다.

표 IV-19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력의 상관계수

집단별	사례수	상관계수
전체 집단	262	.074
〈기준 1〉 집단	147	.078
〈기준 2〉 집단	241	.043

Rest(1983)에 의하면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감수성은 서로 다른 심리적 변수이기 때문에 낮은 상관관계가 도출되어야 한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도 모든 집단에서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력 간의 상관계수는 .10 이하의 낮은 수치가 산출되었고, 통계적으로 의미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Bebeau(1985)의 연구(.37)와 홍성훈(2000)의 연구(.23)보다는 다소 낮고 문미희(2004)의 연구(.07)와 이지혜(2005)의 연구(.033)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두 변수 간의 낮은 상관관계를 예상한 연구 초기의 기대와 부합되었고,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력은 서로 다른 심리적 변인임을 상정한 이론적 전제도 충족시켜주었다.

4) 검사지 흥미도 및 이해도 분석

도덕적 감수성 검사지에 활용된 세 가지 딜레마 사례들에 대해 피험자들이 어느 정도 흥미를 갖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제시된 딜레마 상황이 학생들에게 너무 어렵거나 흥미가 없다면 검사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흥미도와 이해도는 검사 수행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라 볼 수 있다.

(1) 흥미도 분석 결과

검사지에서 활용된 딜레마 스토리에 대한 흥미도는 검사 수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전체 아래, 각 딜레마별로 흥미도를 분석하였다.

각 딜레마마다 “위의 () 이야기는 흥미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흥미 있었다’ 와 ‘흥미 없었다’ 등 2가지 선택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후, 그 반응을 분석하였다. 전체 통계분석 대상자 147명 중 긍정적인 반응(‘흥미있었다’)은 다음과 같다([표IV-20] 참조).

표 IV-20 긍정적 반응자수

단위: 명(%)

딜레마	학 생	남 자	여 자	합 계
“심부름” 딜레마	중학생	24(64.9)	26(78.8)	50(71.4)
	고등학생	20(71.4)	29(59.2)	49(63.6)
	합 계	44(67.7)	55(67.1)	99(67.3)
“수행평가” 딜레마	중학생	32(86.5)	24(72.7)	56(80.0)
	고등학생	19(67.9)	28(57.1)	47(61.0)
	합 계	51(78.5)	52(63.4)	103(70.1)
“점심시간” 딜레마	중학생	30(81.1)	28(84.8)	58(82.9)
	고등학생	21(75.0)	35(71.4)	56(72.7)
	합 계	51(78.5)	63(76.8)	114(77.6)

주: (%)는 각 셀별 전체인원 대비 긍정반응자의 비율임.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딜레마 스토리에 대한 흥미도는 “심부름”의 경우 67.3%, “수행평가”의 경우 70.1%, “점심시간”의 경우 77.6%로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3가지 딜레마 모두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흥미도 수치가 높았고, 성별로 보면 “수행평가”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해도 분석 결과

흥미도와 마찬가지로 이해도 역시 검사 수행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변수라 보고, 각 딜레마마다 “위의 ()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웠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이해하기 쉬웠다’ 와 ‘이해하기

어려웠다’ 등 2가지 선택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후, 그 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전체 통계분석 대상자 147명 중 “심부름”은 143명(97.3%), “수행평가”는 142명(96.6%), “점심시간”은 147명(100.0%)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4. 집단별 통계분석

1차 연도 연구는 예비검사인 데다, 바로 위의 신뢰도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준 1〉 집단인지 〈기준 2〉 집단인지의 여부와 심부름 딜레마의 포함 여부에 상관없이 내적 일치도가 동일하게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1차 연도 연구에서는 〈기준 1〉 집단에 대하여 “심부름 딜레마”를 포함한 경우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학교급별 비교

학교급별로 도덕적 감수성 총점과 하위요소 점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IV-21]과 같다.

표 IV-21 학교급별 분석 결과

구 분	중학생(N=70)		고등학생(N=77)		t 값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황지각	<u>21.2</u>	2.99	19.5	3.47	3.20	**
결과지각	<u>22.8</u>	2.88	21.2	3.26	3.23	**
책임지각	<u>23.2</u>	2.68	22.6	3.58	1.20	
감수성 총점	<u>67.2</u>	7.11	63.2	9.09	2.95	**

감수성 총점을 학교급별(중고생)로 나눠서 살펴보면, 중학생(67.2)이 고등학생(63.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추세는 감수성 하위변인 중 상황지각 감수성과 책임지각 감수성에서도 확인되었다. 책임지각 감수성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나는 전체적인 추세에서는 이탈되지 않았다.

2) 성별 비교

도덕적 감수성 총점과 하위요소 점수를 성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IV-22]와 같다.

표 IV-22 성별 분석 결과

구 분	남(N=65)		여(N=82)		t 값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황지각	<u>20.6</u>	3.80	20.0	2.96	.96	—
결과지각	22.0	3.68	22.0	2.75	.07	—
책임지각	<u>23.0</u>	3.57	22.8	2.87	.24	—
감수성 총점	<u>65.5</u>	9.94	64.8	7.04	.50	—

감수성 총점을 보면, 남학생(65.5)이 여학생(64.8)보다 근소하게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도는 없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도덕 감수성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세 하위요소 모두에서도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3) 학교급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감수성 총점에 있어서 학교급과 성별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IV-23] 및 [표IV-24]와 같다.

표 IV-23 학교급별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 기술통계치

	남			여		
	N	M	SD	N	M	SD
중학생	37	<u>68.0</u>	7.21	33	<u>66.4</u>	7.01
고등학생	28	<u>62.3</u>	12.05	49	<u>63.8</u>	6.95
합계	65	<u>65.5</u>	9.94	82	<u>64.8</u>	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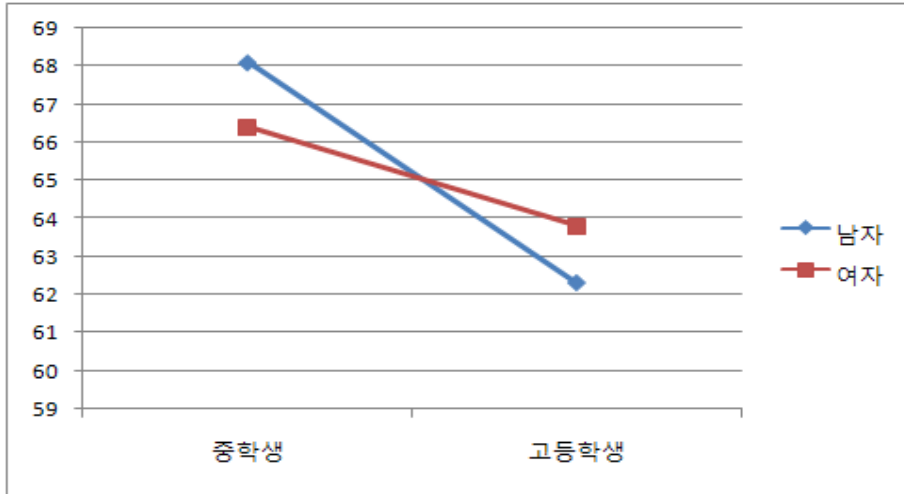
표 IV-24 학교급별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변수: 감수성 총점)

소스	제3유형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모형	677.5.1(a)	3	225.834	3.335	.021
학교급	610.781	1	610.781	9.020	.003
성별	8.304E-02	1	8.304E-02	.001	.972
학교급*성별	91.942	1	91.942	1.358	.246
오차	9,683.206	143	67.715		
합계	634299.0	147			

(a) R제곱=.065 (수정된 R 제곱=.046)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감수성 총점에 있어서 학교급과 성별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위의 기술통계치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아니지만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생(62.3)이 중학생(68.0)보다 큰 폭으로 낮아지고 여학생의 경우는 중학생(66.4)에서 고등학생(63.8)이 되어도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중학생의 경우는 남학생(68.0)이 여학생(66.4)보다 높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여학생(63.8)이 남학생(62.3)보다 높아지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허위반응자 115명을 제외하기 전의 전체 연구대상자(N=262)를 대상으로 한 통계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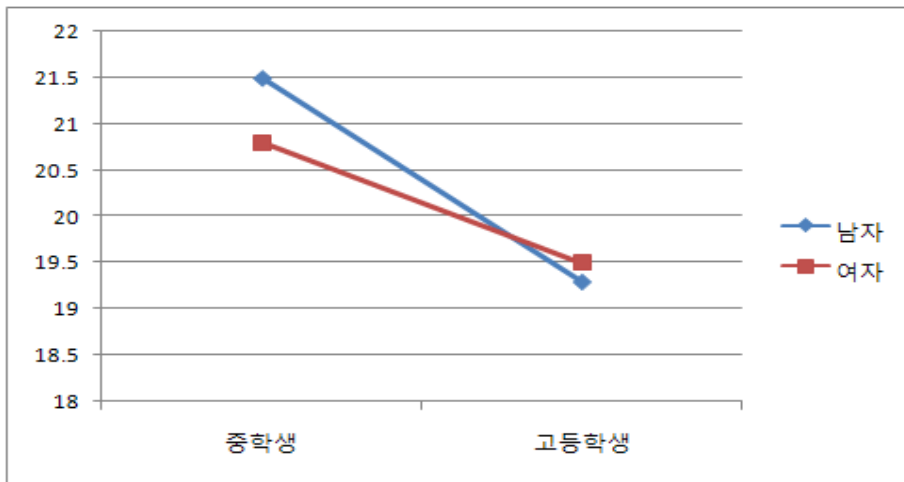
도덕적 감수성 총점에 대한 학교급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IV-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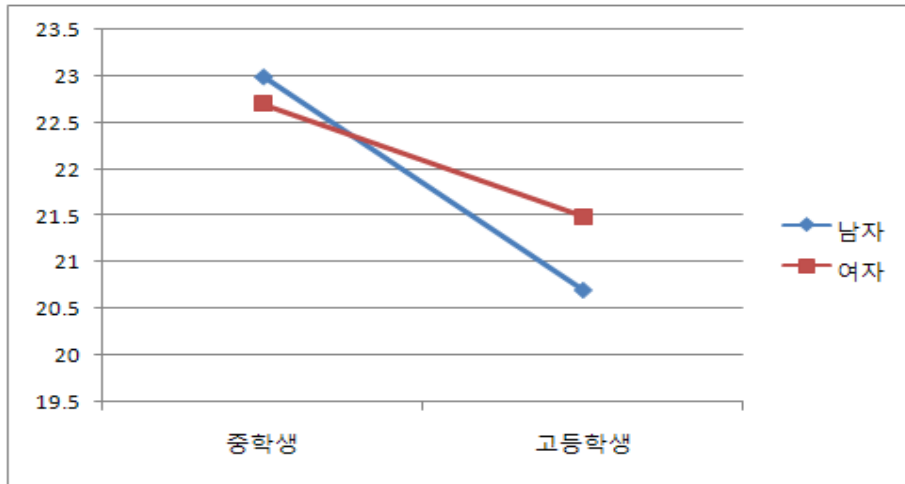
【그림 IV-1】 도덕적 감수성에 대한 학교급*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면 감수성 점수가 하락하는데, 이러한 하락 추세는 남학생의 경우가 여학생보다 더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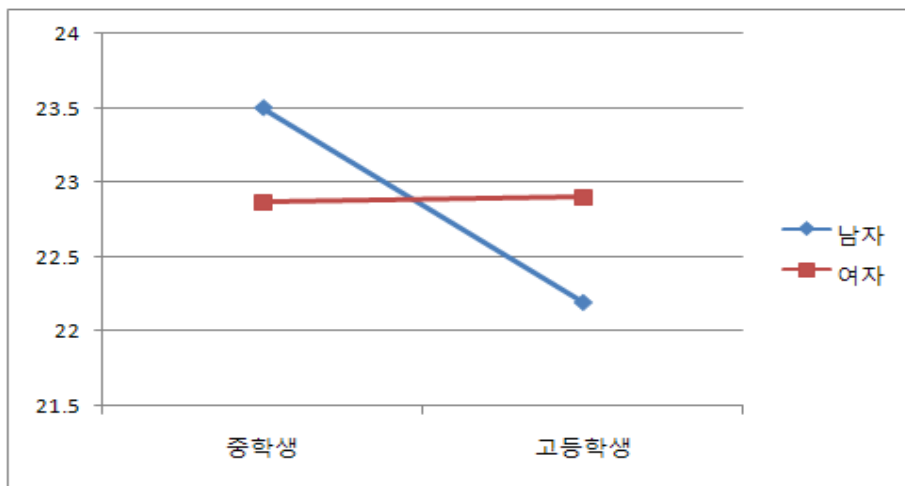
한편, 감수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소에 있어서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IV-2], [그림IV-3], [그림IV-4] 참조).



【그림 IV-2】 도덕적 감수성(상황지각)에 대한 학교급*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IV-3】 도덕적 감수성(결과지각)에 대한 학교급*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IV-4】 도덕적 감수성(책임지각)에 대한 학교급*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감수성 총점에서 중학생일 때는 남학생이 높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여학생이 높아지는 현상은 감수성 하위요소 3개 모두에서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상호작용이 통계적 유의도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추세가 피험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내년의 본 검사에서도 나타날 경우, 그 원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향후의 청소년 지도나 교육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4) 부모학력에 따른 비교

부모학력에 따른 비교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도덕적 감수성의 차이가 없었고, 어머니 학력에 따라서는 결과지각을 제외한 상황지각, 책임지각, 감수성 총점 지각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경우 도덕적 감수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IV-25], [표IV-26] 참조).

표 IV-25 부학력 비교

구 분	부학력(Missing Value=3)				t 값	유의도
	고졸이하(N=57)		대졸이상(N=8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황지각	20.53	3.43	20.02	3.31	.879	.381
결과지각	22.21	3.14	21.68	3.13	.997	.385
책임지각	23.05	2.96	22.70	3.34	.645	.520
감수성 총점	65.79	8.11	64.40	8.57	.970	.334

표 IV-26 모학력 비교

구 분	모학력(Missing Value=3)				t 값	유의도
	고졸이하(N=68)		대졸이상(N=7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황지각	20.68	3.19	19.71	3.33	1.771	.079
결과지각	22.25	3.16	21.63	3.20	1.165	.246
책임지각	23.38	3.13	22.38	3.21	1.889	.061
감수성 총점	66.31	8.12	63.72	8.48	1.863	.064

5) 종교 유무에 따른 비교

종교의 유무에 따른 도덕 감수성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종교는 전혀 도덕적 감수성의 인식차이는(종교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IV-27] 참조).

표 IV-27 종교에 따른 도덕적 감수성 비교

구 분	없다(N=60)		있다(N=87)		t 값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황지각	20.53	3.47	20.09	3.28	.783	.435
결과지각	21.90	2.97	22.03	3.34	-.251	.802
책임지각	22.95	2.95	22.86	3.35	.164	.870
감수성 총점	65.38	7.79	64.99	8.88	.278	.781

6) 친구수에 따른 비교

친구수에 따른 도덕 감수성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학생들의 친구수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IV-28] 참조).

표 IV-28 친구수에 따른 도덕적 감수성 비교

구 분	5명이하(N=65)		6-10명(N=82)		10명이상(N=82)		t 값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황지각	19.86	3.29	20.26	3.06	20.56	3.70	.458	.633
결과지각	22.00	2.47	21.62	2.90	22.35	3.83	.735	.481
책임지각	23.00	3.00	22.59	2.94	23.17	3.56	.484	.617
감수성 총점	64.86	7.40	64.47	7.47	66.07	9.94	.534	.587

7) 도덕과목 흥미도에 따른 비교

도덕과목 흥미도에 따른 도덕적 감수성을 살펴보면, 도덕과목흥미도가 높은 대상일수록 도덕적 감수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IV-29] 참조).

표 IV-29 도덕과목 흥미도에 따른 도덕적 감수성 비교

구 분	재미있다(N=56)		보통(N=65)		재미없다(N=26)		F 값	유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상황지각	21.11	3.44	19.83	3.22	19.58	3.24	2.935	.056
결과지각	23.02 ^b	3.08	21.43 ^{ab}	3.06	21.12 ^a	3.23	5.178 ^{**}	.007
책임지각	23.89 ^b	3.12	22.09 ^a	2.89	22.77 ^{ab}	3.55	5.103 ^{**}	.007
감수성 총점	68.02 ^b	8.34	63.35 ^a	7.74	63.46 ^a	8.85	5.574 ^{**}	.005

a, b: Tukey's Multiple Comparison(a(b, $\alpha = .05$)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가 조사된 도덕과목 흥미도와 학교급간의 도덕적 감수성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급보다는 도덕과목 흥미도에 따른 인식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IV-30], [표IV-31] 참조).

표 IV-30 도덕과목 흥미도와 학년간의 상호작용 효과 기술통계치

	중학생			고등학생		
	N	M	SD	N	M	SD
재미있다	35	<u>68.74</u>	8.11	21	<u>66.81</u>	8.77
보통	28	<u>65.96</u>	5.25	37	<u>61.38</u>	8.74
재미없다	7	<u>64.86</u>	7.60	19	<u>62.95</u>	9.40
합계	70	<u>67.24</u>	7.12	77	<u>63.25</u>	9.09

표 IV-31 도덕과목 흥미도와 학년간의 상호작용 효과(변수: 감수성 총점)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모형	1147.312	5	229.462	3.512 ^{**}	.005
학교급	212.452	1	212.452	3.251	.074
도덕과목 흥미도	530.948	2	265.474	4.063 [*]	.019
학교급* 도덕과목흥미도	60.150	2	30.075	.460	.632
오차	9213.395	141	65.343		
합계	10360.707	146			

R제곱=.111 (수정된 R 제곱=.079)

8) 도덕적 감수성의 향상요인

이상의 결과에서 도덕적 감수성에 대해선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표 2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감수성은 도덕과목흥미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감수성의 하위요인 중 상황지각은 도덕과목 흥미도에 따라 유의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지각은 학년이 낮을수록, 도덕과목흥미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책임지각은 어머니학력이 낮을수록, 도덕과목흥미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2] 참조).

표 IV-32 도덕적 감수성의 향상요인

	상황지각				결과지각			
	b	β	t	p	b	β	t	p
(상수)	20.062		10.657***	.000	21.891		12.404***	.000
학년	-1.060	-.161	-1.599	.112	-1.313	-.209	-2.112*	.036
성별	.230	.035	.398	.691	-.305	-.048	-.561	.576
부학력	.160	.054	.483	.630	.242	.086	.779	.438
모학력	-.312	-.106	-.983	.327	-.268	-.096	-.900	.370
도덕과목흥미도	.735	.192	2.183*	.031	.879	.242	2.784**	.006
종교여부	-.156	-.023	-.273	.786	.280	.044	.521	.603
친구수	-.069	-.022	-.252	.801	-.256	-.084	-.999	.320
R(R2)	.309(.096)				.346(.120)			
F(p)	2.401(.054)				2.628*(.014)			
	책임지각				감수성 전체			
	b	β	t	p	b	β	t	p
(상수)	21.142		11.525***	.000	63.095		13.399***	.000
학년	.077	.012	.119	.906	-2.297	-.137	-1.384	.169
성별	.085	.013	.151	.880	.011	.001	.008	.994
부학력	.366	.128	1.135	.258	.767	.103	.927	.356
모학력	-.679	-.238	-2.196*	.030	-1.259	-.169	-1.586	.115
도덕과목흥미도	.858	.231	2.616*	.010	2.472	.255	2.935**	.004
종교여부	-.168	-.026	-.300	.765	-.044	-.003	-.031	.976
친구수	-.077	-.025	-.290	.772	-.403	-.050	-.588	.557
R(R2)	.293(.086)				.344(.118)			
F(p)	1.812(.090)				2.588*(.016)			

5. 타지수와의 상관성 분석

Rest(1983)의 모형에서 제시된 4개의 요소들은 모두 도덕적 행동을 일으키는 데 관여하는 심리적 과정들이다. 그 요소들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도덕적 행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요소들은 모두 도덕적 행동의 결정인자가 된다.

Rest가 자신이 주장한 4-구성요소 모형의 특징에 대해 언급한 내용(Rest, 1986, pp.4-5, 문미희, 2004, pp.26-27에서 재인용)을 보면 네 가지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유추할 수 있다.

첫째, 4-구성요소 모형에서의 네 가지 심리적 과정은 서로 단선적인 관련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비록 한 가지 과정이 다른 과정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그것들은 각각 별개의 과정들이다.

둘째, 4-구성요소 모형은 도덕성의 기본 요소를 인지, 정서, 행동 등 서로 분리된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연구 목적에 따라 인지, 정서, 행동 중에서 어느 하나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도덕 현상의 장에서는 인지는 항상 정서와 관련이 있고 정서는 늘 인지와 관련이 되며, 인지와 정서는 둘 다 도덕적 행동을 일으키는 과정에 함께 내재되어 있다. 즉, 정서를 별개로 간주하는 도덕적 인지나, 인지를 완전히 별개로 하는 도덕적 정서, 그리고 행동을 인지와 정서로부터 분리하는 도덕 행동은 있을 수 없다.

셋째, 4-구성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인성의 일반적 특성이 아니라 도덕행동의 표출과정에 내재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의미한다. 이 구성요소들은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을 구성하는 네 가지 미덕으로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특정 행동선택 과정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야기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중요한 분석단위로 제시되고 있다. 즉, 4-구성요소 모형은 특정 상황에서 도덕행동을 산출하는 데 관련된 심리적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넷째, 4-구성요소 모형은 실제에 있어서 직선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각 구성요소 사이에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제2 구성요소, 즉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제1 구성요소인 각 개인의 상황에 대한 해석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제1 구성요소 이후에 제2, 제3, 제4 구성요소가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들 구성요소는 도덕행동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과정을 기술한 분석적 틀이며, 논리적인 순서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이로써 볼 때, 네 가지 요소들 사이에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으며, 네 요소들은 도덕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논리적 개념일 뿐 시간적 순서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개괄하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도덕감수성(제1요소)과 도덕판단력(제2요소)에 대한 측정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까닭에, 이 두 요소 간의 상호관계는 비교적 소상하게 밝혀진 바 있다.

Rest(1983)에 의하면 도덕판단력과 도덕감수성은 서로 다른 심리적 변수이기 때문에 낮은 상관관계가 도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도덕감수성과 도덕판단력 간의 상관계수는 .10 이하의 낮은 수치가 산출되었고, 통계적으로 의미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Bebeau(1985)의 연구(.37)와 홍성훈(2000)의 연구(.23)보다는 다소 낮고 문미희(2004)의 연구(.07)와 이지혜(2005)의 연구(.03)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두 변수 간의 낮은 상관관계를 예상한 연구 초기의 기대와 부합되었다.

그런데, 도덕적 동기화(제3요소)와 도덕적 품성화(제4요소)에 대한 측정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없는 관계로 이 두 요소와 다른 요소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정보는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만 이론상 네 요소들이 도덕행동을 표출하는 데 관여하는 서로 다른 변수임을 감안할 때, 도덕적 동기화나 도덕적 품성화와 다른 하위요소들 간에도 낮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상정할 수 있다.

Narvaez & Rest(2004[1995], p.503)에 따르면, 요소3(동기)은 요소1(감수성)을 방해하며 요소2(판단)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 4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 동원된다. 이 요소들은 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조화롭게 상호작용해야만 한다. 때때로 한 요소가 너무나 많은 주의를 강요할 경우 다른 요소들은 불가피하게 그 역할이 작아진다. 예를 들어 정서가 작용하면, 그 결과 행동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한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첫 번째 행동을 하는 도중에 야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가령 굳건함과 결의(제4요소인 도덕적 품성화)는 감수성(제1요소)을 방해할 수 있다.⁵⁾ 도덕행동에 대한 개인적 희생의 대가가 보다 명백해질수록 상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희생자 비난하기’로 불리는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상황 내에서 사소한 변화로 보이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이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근처에 있는 사람의 수, 참여한 사람들의 성별, 바로

5)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또 다른 세 가지의 입장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첫째, 도덕적 행동에 이르는 과정에서 선후의 관계도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입장이다. 즉 감수성에 따라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판단에 따라 감수성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각 지수의 하위요인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셋째, 지수간의 상관성이 일대일(一對一)의 형식으로만 도식화되지 않고 일대다(一對多)의 형식으로도 도식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통계분석에서의 상관관계는 일대일의 상관성에 국한되어 분석이 이루어지지만, 의식의 문제, 특히 다양한 가변성이 수반되는 가치의식의 경우 보다 다층적인 조합구도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경험, 참가자의 매력 등이 있다. 상호작용의 복잡성은 종종 도덕과는 관계가 없는 행동에 대한 원인을 분류해 내기 어렵게 만든다(2004[1995], pp.501-502).

지금까지는 감수성(1요소)과 판단력(2요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이 양자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Bebeau, 1985; 2006[1994], p.229; 홍성훈, 2000; 문미희, 2004; 이지혜, 2005).

1차 연구 결과를 볼 때, 감수성-동기화-품성화간의 상관관계는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P지수는 의미있는 상관성을 보이지 않으며, P지수가 동기화와는 역(-)상관성을 보이고 있다([표 IV-33]; [표IV-34] 참조).

표 IV-33 각 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감수성	KDIT-P지수	동기화	품성화
감수성	1			
KDIT-P지수	.078	1		
동기화	.362***	-.011	1	
품성화	.489***	.121	.591***	1

Pearson's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r)

*** p<.001

	감수성				KDIT_P	동기화								품성화											
	상황 지각		책임 지각			중심성		통합성		근정성		인내		자아강도		수행기술									
						자기 중요 성	전체	자기 일치	요구	전체	근정성			낙관성	전체	인지적 전략	자기 조절	전체	옹기	자아 효능감	전체	사회적 기술	의사소 통능력	전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	1																								
(2)	.773																								
(3)	.491	.613	1																						
(4)	.876	.918	.805	1																					
(5)	.055	.048	.101	.078	1																				
(6)	.149	.235	.404	.301	.002	1																			
(7)	.182*	.316	.363	.329	.057	.615	1																		
(8)	.185*	.309	.425	.351	.034	.887	.910	1																	
(9)	.153	.219	.312	.262	.031	.432	.417	.472	1																
(10)	.081	.171	.322	.219	-.052	.534	.507	.578	.346	1															
(11)	.149	.241	.383	.295	-.004	.575	.550	.625	.881	.749	1														
(12)	.110	.173	.267	.210	-.086	.522	.429	.526	.315	.602	.526	1													
(13)	.132	.269	.273	.257	-.014	.437	.371	.447	.425	.356	.480	.324	1												
(14)	.150	.277	.331	.290	-.056	.581	.486	.590	.461	.569	.613	.762	.859	1											
(15)	.187	.320	.441	.362	-.011	.787	.749	.853	.708	.737	.872	.704	.693	.855	1										
(16)	.349	.556	.458	.522	.049	.414	.423	.466	.297	.352	.387	.306	.412	.448	.503	1									
(17)	.242	.451	.395	.416	.155	.273	.455	.410	.284	.347	.375	.322	.359	.419	.467	.640	1								
(18)	.326	.556	.471	.518	.113	.379	.485	.483	.320	.386	.421	.347	.426	.479	.535	.904	.907	1							
(19)	.312	.453	.359	.431	.029	.420	.466	.494	.278	.290	.342	.281	.355	.395	.475	.716	.664	.762	1						
(20)	.100	.262	.337	.266	.057	.346	.378	.403	.361	.352	.433	.282	.572	.544	.535	.511	.550	.586	.445	1					
(21)	.227	.406	.407	.397	.052	.444	.489	.520	.380	.381	.461	.330	.559	.561	.597	.705	.704	.778	.808	.887	1				
(22)	.222	.305	.210	.283	.063	.296	.224	.287	.119	.287	.229	.267	.264	.325	.325	.496	.325	.453	.406	.315	.417	1			
(23)	.166	.353	.359	.335	.189*	.314	.242	.307	.247	.282	.317	.235	.378	.386	.391	.539	.511	.580	.476	.570	.620	.306	1		
(24)	.237	.408	.358	.384	.161	.377	.289	.368	.232	.352	.341	.309***	.401***	.442	.446***	.641***	.524***	.643***	.548***	.558***	.649***	.778***	.836***	1	
(25)	.298	.516	.465	.489	.121	.448	.477	.515	.350	.419	.459	.370***	.518***	.554	.591***	.848***	.808***	.915***	.796***	.758***	.909***	.608***	.754***	.848***	1

Pearson's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r)

* p<.05 ** p<.01 *** p<.001

제 V 장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활용방안 및 정책방안
3. 2차년도 세부 연구 계획(종합)

제 V 장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적으로 최초의 청소년용 도덕적 감수성 검사지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데 있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도덕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도덕적 갈등 및 문제 사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하여 감수성 딜레마를 선정하고 예비 검사지를 개발하여 타당화 연구를 수행하며, 3가지 하위요소를 측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Volker(1984)가 제시한 세 요소, 즉 상황지각 감수성, 결과지각 감수성, 책임지각 감수성이 도덕적 감수성의 하위요소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예비 검사지를 제작하였다.

검사에 활용된 도덕 딜레마는 “친구의 심부름”, “절박한 수행평가”, “점심시간” 등 3가지이며, 모두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갈등 사례들이다.

문항 구성 및 채점 방식을 보면, 각 딜레마마다 감수성의 세 하위요소를 재는 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척도이므로 5점 만점이다. 총 18개 문항이어서 감수성 만점은 90점이 된다. 역코딩 문항은 총 7개였다.

감수성 검사지의 허위 반응은 6개 문항 중에 2개를 정-반 문항으로 설정하여 정-반 문항 간의 반응차이를 기준으로 체크되었다. 정-반 문항 간의 차이가 얼마일 때 허위반응으로 보는지의 문제에 대하여 워크샵에서 많은 논의가 되었고, 그 결과 3점 이상(3점 포함)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 허위 반응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3점 이상의 차이가 3개 딜레마 중 몇 개에서 나타나는 경우에 허위반응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 ‘1개 이상’ 과 ‘2개 이상’ 등의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각각 <기준 1>과 <기준 2>로 명명하고, 각 기준에 따라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기준 1>을 적용하였을 때, 전체 262명의 연구대상 중 허위반응자는 115명이었고(제외율 43.9%),

통계분석 대상자는 모두 147명(56.1%)이었다. 〈기준 2〉를 적용하였을 때, 허위반응자는 21명으로 제외율은 8.0%이었고, 통계분석 대상자는 모두 241명(92.0%)이었다.

신뢰도 점검을 위해서는 문항 내적 일치도를 하위요소별로 선출하되 허위반응자를 제외시키는 두 가지 기준을 비교한 결과, 〈기준 1〉이 〈기준 2〉보다 α 가 근소하게나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할 때, 〈기준 1〉의 방식이 비록 많은 피험자가 제외된다는 단점은 있으나 α 가 .84로서 가장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준 1〉을 바탕으로 허위반응자를 가려내어 통계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요인분석에 있어서는 하위요소가 명확치 않은 개념일 경우 다단계의 탐색적 요인분석이 필요하지만, 도덕적 감수성의 경우는 다수의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하위요소가 이미 밝혀져 있는 상태이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요인분석보다는 기존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인 요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준 1〉 집단(N=147)과 〈기준 2〉 집단(N=241)에 대한 확인적인 요인분석을 각각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기준 1〉 집단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구의 심부름” 중 1, 3, 4, 5, 6번 문항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준 2〉 집단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친구의 심부름” 딜레마의 문항 모두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2차년도 연구에서는 그 딜레마를 교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요인분석에서 “친구의 심부름” 딜레마의 문항들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문항들을 제외한 후에 α 를 다시 산출한 결과, 〈기준 1〉 집단과 〈기준 2〉 집단 모두에서 “심부름” 딜레마를 제외하였을 때 α 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검사지의 내적 일치도는 전반적으로 .80을 넘어서는 비교적 양호한 수치였고, 그동안 국내외에서 다양한 분야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도덕적 감수성을 측정한 다른 검사의 수치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연도 연구에서는 “친구의 심부름” 딜레마를 교체할 필요성은 여전하였다.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와 준거 타당도 측면에서 점검되었다. 국내외에서 도덕성의 발달 또는 측정을 연구한 도덕심리학 전공자의 자문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고, 준거타당도는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감수성 간의 상관계수산출을 통해 점검되었다.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력 간의 상관계수는 .10 이하의 낮은 수치가 산출되었는데, 이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며, 전반적으로 두 변수 간의 낮은 상관관계를 예상한 연구 초기의 기대와 부합되었고,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력이 서로 다른 심리적 변인임을 상정한 이론적 전제도 충족시켜주었다.

한편, 본 검사에서는 검사지에서 활용된 딜레마 스토리에 대한 피험자의 흥미도와 이해도가 검사 수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각 딜레마별로 흥미도와 이해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흥미도의 경우를 보면, “친구의 심부름” 67.3%, “절박한 수행평가” 70.1%, “점심시간” 77.6%로서 모두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세 딜레마 모두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흥미도 수치가 높았고, 성별로 보면 “수행평가”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97~100%의 피험자들이 “딜레마 내용을 쉽게 이해하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검사지가 청소년 대상의 도덕적 감수성 측정도구로서 적절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한 다음,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되, 신뢰도(내적 일치도)가 〈기준 2〉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기준 1〉 집단에 대하여 “심부름 딜레마”를 포함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학교급별로 도덕적 감수성 총점과 하위요소 점수를 분석한 결과, 감수성 총점은 중학생(67.2)이 고등학생(63.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이러한 추세는 감수성 하위요소들 중 상황지각 감수성과 책임지각 감수성에서도 확인되었다. 책임지각 감수성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나는 전체적인 추세는 확인되었다.

성별로 비교한 결과, 감수성 총점은 남학생(65.5)이 여학생(64.8)보다 근소하게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도는 없었고, 이러한 추세는 세 하위요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청소년의 도덕 감수성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학교급과 성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감수성 점수가 더 낮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급 상승에 따른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덕적 감수성 점수는 중학생일 때는 남학생이 높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여학생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추세는 도덕적 감수성의 하위요소 3개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도덕적 판단력 점수는 더 높지만 도덕적 감수성 점수는 더 낮은 원인으로는 가중되는 입시 중압감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점수 하락폭이 더 커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의 탐색과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이는 향후의 청소년 지도나 교육에서 시사점이 클 것이라 사료된다.

2. 활용방안 및 정책방안

본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는 교육행정부처, 각급학교, 기관, 청소년 개인 수준에서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교육행정부처에서는 매년 청소년의 도덕 감수성의 정도를 지수화하여 보관함으로써 청소년 품성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각급학교, 기관에서는 해당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도덕적 감수성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 약화 혹은 수정할 수 있다.

셋째, 학생 개인 수준에서는 자신의 도덕적 감수성 정도를 확인하도록 하여 자기주도적 인성교육을 위한 동기를 갖도록 할 수 있다.

넷째, 추후 청소년 관련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2차년도 세부 연구 계획(종합)

1) 총괄 목표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 연구의 2차년도 총괄 목표는 1차년도 연구결과를 통해서 ①총괄적인 진단, ②약점 보완, ③최종안 마련을 위한 방향 제시로 요약된다([부록 8] 참조).

2) 세부 연구 계획

1차년도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요인분석에 의해 도출된 요인보다도 각 딜레마스토리에 의한 결정력이 더 높게 나타나,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심리검사에서 하나의 요인에 묶일 수 있는 문항수를 통상적으로 최소 5개 이상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딜레마 수는 줄이면서 하나의 딜레마 내에서 문항수를 많이 두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⁶⁾

6) 딜레마 수를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독립적으로 이미 그 타당도가 확보된 도덕적 판단력 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지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호감도 높은 딜레마를 통합적으로 3개 정도 상정하고, 거기에 3개 지수관련 문항을 무작위로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 둘째, 3개의 각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딜레마 숫자를 3개에서 2개 정도로 줄이고, 거기에 허위문항을 제외하고 실제문항을 기준으로 15개 이상 넣어서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4개 지수개발을 위한 연구팀 전체와 유기적인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1차년도 연구가 비록 소수를 대상으로 했지만, 드러난 제한점들을 바탕으로 2차년도의 세부적인 연구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난 “친구의 심부름” 딜레마를 다른 딜레마로 교체한다.

둘째, 연구 여건 상 1차년도에서는 실시하지 못했던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다.

셋째, 타당도 점검을 위하여 여건이 허락되면 비행 청소년(소년원 재소자 등)들을 검사하여 일반 청소년과 비교 분석한다.

넷째, 전국 단위의 다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1차년도의 허위반응자 제외 기준의 타당성을 재점검한다.

다섯째, 도덕적 감수성 검사의 허위 문항 제시 방식이 도덕 동기화나 품성화 검사와 차이가 있었던 점에 대해, 도덕적 감수성 검사의 제시방식의 타당성을 2차년도 연구를 통해 재검토한다.

여섯째,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허위반응자 제외기준의 적합성을 재확인한다.

일곱째, 이상의 과제를 2차년도 연구 초기에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다수 피험자를 대상으로 표준화 연구를 수행한다.

3) 각분야 협조사항 및 건의사항

도덕적 행동에는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거나 주저하게 되거나 적어도 Rest의 4구성요소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전제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줄 수 있는 별도의 연구절차가 필요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차 연도의 연구에는 비록 도덕적 판단력(제2요소)에 대한 신뢰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4요소간의 상관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별도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위해 각 분야를 망라하여 다음 몇 가지 협조사항 또는 건의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장된 각 분야의 지수산출과 병행하여, 지수간의 관계매김의 알고리즘을 구성해야 한다. 그 해법은 기존 지수단위의 팀별 구성을 근간으로 하면서, 방법론차원에서 별도의 논의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예컨대 가중치는 어떻게 줄 것이며, 이렇게 구성된 각 요소간의 복합적인 조합구조는 어떤 이름으로 명명될 수 있는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MBTI 등 다양한 성격심리검사도구의 지수구성원리를 원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지수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순서와 친화성이 높은 범주화 등에 대해서도 고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도덕적 판단력 지수의 경우, 준거타당도 확보를 위해 MJT를 동시에 측정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K-DIT 계산자 등에 대한 상세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문항 자체가 갖고 있는 불성실답안 검색 가능성, 신뢰도에 문제가 되는 응답의 검색 가능성 등과는 별개로, K-DIT에 의한 기존의 동일응답지수(NoDIF), 무응답지수(MISRT)를 활용하여 불성실답안을 제거하는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적인 타당도 제고를 위해, 한국윤리교육학회의 2012년도 전반기 학술세미나시 동학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의 협조를 통해, 국제적으로 저명한 도덕성측정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술토론을 제안하다.

다섯째, 본 연구의 행정적인 저작권 문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국윤리교육학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쌍방이 운영하고 있는 학술지에 연구결과의 일부분을 기획논문으로 게재하여 학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성현(2005). SPSS 통계자료분석. (주)통계정보.
- 김영환 외(2010). 심리검사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김은정·박양규(1998). SPSS 통계분석8. 21세기사.
- 김향인(2000). 도덕판단력 측정에 대한 고찰: DIT와 MJT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12. pp.227-242.
- 문미희(2004). 사범대 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용린(1988). 도덕과교육론. 갑을출판사.
- 문용린(2002). 인권감수성 지표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이지혜(2005). 도덕민감성 척도 개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혜(2005). 도덕민감성 척도 개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추병완(1999). 도덕교육의 이해. 백의.
- 홍성훈(2000). 의료윤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 국외문헌

- Akira, et. al.(2004), *The development of a brief and objective method for evaluating moral sensitivity and reasoning in medical students*, BMC Medical Ethics, 5(1) <http://www.ethicsweb.ca/guide/moral-decision.html>.
- Anastasi, A., & Urbina, S.(1997). *Psychological testing (7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 Bebeau, M. J., Born, D. O., & Ozar, D. T.(1993). The development of a professional role orientation inventory.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Dentists*, 60(2), 27-33.
- Bebeau, M. J., J. R. Rest(1982). *The Dental Sensitivity Test*. Minneapolis Division of Health Ecology, School of Dentistry,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 Bebeau, M. J., J. R. Rest, & C. M. Yamoore.(1985). Measuring Dental Students' Ethics Sensitivity. *Journal of Dental Education*, 49(4): 225 - 235.
- Chang, F. Y.(1993). *The development of a test of teacher's moral reaso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Minnesota. Minneapolis.
- Crisham, P.(1981). *Moral judgement of nurses in hypothetical and nursing dilemma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Minnesota. Minneapolis.
- Ernest, M.(1990). *Developing and testing cases and scoring criteria for assessing geriatric dental ethical sensitiv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 Kaplan, R. M. & Saccuzzo, D. P.(1997). *Psychological Testing: Principles, applications, and issues (4th ed.)*. Pacific Grov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Kohlberg, L. & Kramer, R.(1969),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childhood and adult moral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vol.12, pp.93-120.
- Kohlberg, L.(1958), *The Development of Modes of Moral Thinking and Choice in the Years Ten to Six-tee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Kohlberg, L.(1963), *Moral Development and Identification*. In H. Stevenson, ed., Child Psychology. 62nd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Part 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ohlberg, L.(1964), *Development of moral character and moral ideology*.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I.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Kohlberg, L.(1964), *The development of Moral Character And Ideology*. In M. L. Hoffman, 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1.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Kohlberg, L.(1967), *Moral and Religious Education and the Public Schools: A Developmental View*, in T. Sizer, ed., Religion and Public Edu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 Kohlberg, L.(1967), *Moral and Religious Education and the Public Schools: A Developmental View*, in T. Sizer, ed., Religion and Public Edu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 Kohlberg, L.(1969),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A.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Ill.: Rand McNally.
- Kohlberg, L.(1971), "From is to Ought: How to commit the naturalistic fallacy and get away with it in the study of moral development", in Mischel, T., Cognitive development and epistem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Kohlberg, L.(1971). *"From is no to Ought: How to commit the naturalistic fallacy and get away with it in the study of moral development*. In Mischel, Cognitive Development and Epistem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Kohlberg, L.(1973), *"Continuities in Childhood and Adult Moral Development Revisited"*, in P. B. Baltes and K. W. Schaie, 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Personality and Socialization, New York and London: Academic Press.
- Kohlberg, L.(1984), *"Essays on moral development: The nature and validity of moral stages"*: vol. 2. San Francisco: Harper & Raw.

- Kohlberg, L.(1986). *A current statement on some theoretical issues*. In S. Modgil and C. Modgil (Eds.) *Lawrence Kohlberg: Consensus and Controversy* (pp.485-546). Philadelphia: Falmer Press.
- Kohlberg, L.(1987), *"The young child as a philosopher"*, in L. Kohlberg, ed., *Child Psychology and Childhood Education: A cognitive-developmental view*, New York: Longman, pp.13-44.
- Kohlberg, L., & Kramer, R.(1969),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Childhood and Adult Moral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2, pp.93-120.
- Kurtines, William M., Jacob L. Gewirtz, eds.(1995).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 서울: 학지사(2004).
- Lickona, T.(1991), *Educating for Character*, New York: Bantam.
- MacDonald, C.(2002), "Moral decision making: An analysis" , <http://www.ethicsweb.ca/guide/moral-decision.html>.
- McNeel, S. P.(1992). *Moral Maturing in College*.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Rest, J. R.(1983). "Morality" . In J. H. Flavell & E. M. Markma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cognitive development, vol. 3*. NY: John Wiley & Sons.
- Rest, J. R.(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Praeger.
- Rest, J., Narvaez, D., Bebeau, M., Thoma, S.(1999). *Postconventional moral thinking: A New-Kohlbergian approach*. Lawrence Erlbaum: London.
- Rest, J. R. & Darcia Narvaez(1994). 문용린 외 역(2006). **윤리경영시대의 전문직업인의 윤리발달과 교육**. 서울: 학지사.
- Sadler, T. D.(2004), "Moral sensitivity and into contribution to the resolution of socio-scientific issues" , *Journal of Moral Education*, 33(3), 340-358.
- Volker, J. M.(1984). *"Counseling experience, moral judgment, awareness of consequences and moral sensitivity in counseling practi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부 록

1. 노인치과학을 위한 윤리적 감수성 검사(GDEST)
2. Akira Akabayashi 등의 PIT 질문지
3. 홍성훈의 의사용 도덕적 감수성 검사지(MEST)
4. 문미희의 일반용 인권감수성 검사지(2004)
5. 이지혜의 도덕적 감수성 검사(2005)
6. 청소년 도덕성 지수 개발 세부 논의 과정
7.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1차년도안)
8. 2차년도 도덕적 감수성 문항 구성 체계

부록 1

노인치과학을 위한 윤리적 감수성 검사
(GDEST, Ernest, 1990)

사례명: 환자 루엘라

이전에 메리 필드(Mary Fie인) 박사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루엘라씨의 차트가 학생들에게 제시된다. 차트의 과거병력란에는 루엘라 씨가 전에 뇌정맥질환으로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구강상태를 검사한 결과 루엘라 씨에게 상실치아는 없으며,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인 편이며 연금보조를 받고 있다. 그녀는 혀에 있는 상처를 검사받으려고 진료예약을 했다. 차트를 살펴보고 난 후 학생은 비디오 화면에서 루엘라 씨와 대화한 치과의사의 역할을 맡게 된다. 화면 속에서 루엘라 씨는 치과의사의 질문에 힘겹게 대답을 한다. 그녀는 항상 하루 두 번씩 왼손으로 양치를 한다고 표현한다. 그녀가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뇌졸중 이후 오른손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선택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치과의사가 “예전에 저한테 치료받으셨죠?” 라고 물으면 그녀는 분명하게 “아니요” 라고 말한다. 게다가 “그럼 전에 누구한테 치료를 받으셨나요?” 라고 물으면 “어떤 소녀요.” 라고 대답한다. 차트에는 분명히 이전의 담당 치과의사가 메리 필드라고 기록되어 있다. 화면 속의 치과의사는 루엘라 씨의 의사결정능력을 의심하면서 마침내 정신능력검사도구(Mine Mental State Exam)의 문항들을 질문하기 시작한다. 루엘라는 낙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모든 것이 뇌졸중 이후 실어증의 영향 때문임을 설명하고 싶어했다. 예를 들어 “올해가 몇 년도인가요?” 라고 물으면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기억을 못해요.” 라고 말한다. 뇌졸중으로 인한 문제와 함께 루엘라 씨는 혀에 심각하게 보이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아직 정확한 진단은 이르지 않지만 그것은 앞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편평상피세포종양처럼 보였다. 치과의사는 생검을 실시해야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루엘라는 생검을 거부하고 치과의사가 가족이나 다른 보호자와 접촉하는 것도 거절하였다.

채점 매뉴얼(일부만 발췌)

채점영역B. 의사결정자로서 환자의 인지능력

1점. 루엘라 씨가 의사결정력이 없다고 가정. 뇌졸중이 이해능력이 아닌 표현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

예: “그녀가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예: “그녀는 진료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만큼의 능력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아요.”

2점. 의사결정력을 약간 인정. 그녀의 과거 질환이 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힘들게 하고 있다고 봄.

예: “그녀는 이해는 하는 것 같지만, 감정을 전달하지 못해요. 따라서 그녀는 의사결정력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3점. 그녀가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인정.

예: “그 환자는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뇌졸중을 앓긴 했지만 여전히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녀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 “만일 질문을 하면, 루엘라 씨는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에 연필과 종이를 준다면 그녀는 아마도 대답을 써낼 수 있을 거예요.”

부록 2

Akira 등(2004)의 PIT 질문지

(원본은 일본어이며, 아래는 Akira 등이 영어로 번역한 것임)

■ Instructions

Below are three vignettes pertaining to healthcare ethics. Upon reading each vignette, please list as many points of ethical relevance as possible. Please do not explain, however, how to deal with each case.

Vignette 1.

A 23-year-old man has just had a car accident and is brought to your hospital. His level of consciousness is minimal and he is incapable of communicating. Due to severe blood loss, a blood transfusion is needed. According to his parents, the patient is a devoted Jehovah's Witness (a religion in which blood transfusion is prohibited). His parents, who are not Jehovah's Witnesses, request a blood transfusion.

Vignette 2.

Baby X is a premature infant; he was delivered at 23 weeks (standard is 40 weeks) and weighs 480 grams (standard is 3000 grams). Baby X's 17-year-old mother will not inform you of how to contact the father. Baby X is currently being treated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and requires immediate treatment for intracranial bleeding. Although treatment can save baby X's life, there is a 50% risk of mental retardation. The mother tells you that she does not want you to perform the procedure.

Vignette 3.

A 74-year-old female with terminal stomach cancer is given approximately one month to live. She has gone into respiratory failure and her level of consciousness continues to fall. Test results inform you that she has pneumonia. You will soon have to decide whether or not to prescribe antibiotics, whether or not to perform an intubation, and whether or not to attach a respirator. You are currently in contact with the family by phone since they live far from your hospital.

■ PIT domain' s respective scoring standard

Domain A (autonomy and patient' s right): 3 points

Decision-making capacity, advance directives, patient' s rights, patient' s preference, etc.

Domain B (beneficence and nonmaleficence): 3 points

Physician' s duty to provide treatment, quality of life (QOL), patient' s best interests, risks and benefits of treatment, etc.

Domain C (justice and contextual features): 4 points

Resource allocation, family, economic considerations, legal matters, etc.

〈Reliability studies of PIT〉

Internal consistency was achieved with a Cronbach alpha of 0.68. The Cronbach alphas of each respective domain were the following: Domain A (0.66), Domain B (0.61), Domain C (0.56). Inter-rater reliability was achieved with correlation coefficients of $r=0.83-0.90$, $p<0.01$ for the total and $r=0.62-0.83$, $p<0.01$ for respective domains. Lastly, test-retest reliability was achieved with a correlation coefficient of $r=0.89$, $p<0.001$.

〈Validity studies of PIT〉

Face validity was achieved by evaluation from a total of ten specialists from the fields of sociology, philosophy, psychology, medicine and law. All agreed that the content of the vignettes and standard score were apt and capable of measuring ethical sensitivity. Moreover, factor analysis ensured factorial validity with all three domains. When the PIT test was conducted before and after a healthcare ethics course, all scor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aired t -test, $p<0.01$).

출처: Akira Akabayashi, et. al., "The development of a brief and objective method for evaluating moral sensitivity and reasoning in medical students", *BMC Medical Ethics*, 5:1, 2004 at <http://www.biomedcentral.com/1472-6939/5/1>

부록 3

홍성훈(2000)의 의사용 도덕적 감수성 검사지(MEST)

출석번호: _____ 성명: _____ 성별: 남__ 여__

이 검사지는 의료인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이 검사지의 결과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결과가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견을 솔직하게 답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 7. 16

서울의대 의학교실

서울사대 교육학과

❖ 다음에 제시한 이야기는 방금 여러분들이 비디오로 보신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꼼꼼히 읽으시고, 아래 문항들에 대해 여러분 각자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어느 날 산부인과 의사인 닥터 김에게 30대 후반의 사촌 누나인 K씨가 찾아왔다. K씨는 매우 쑥스러워 하면서 자신이 임신 16주째라고 고백하였다. 그러면서 임신 중인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봐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미 딸을 셋이나 둔 K씨는 도저히 딸을 하나 더 낳을 수 없다고 한다. 시부모님 등 집안 사람들의 눈총도 심하지만 경제적으로 딸 셋을 키우는 데도 허리가 휠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아들을 낳으면 시아버님이 재산을 좀 물려주실 눈치여서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한다.

현재 K씨의 입장은 딱하기만 하다. 5대 독자인 남편은 남편대로 성화를 부리고 있다. 아내인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도 몇 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고, 근래 들어서는 외박도 늘어나고 있다. 한 마디로 집안이 말이 아니다. K씨는 남도 아니고 사촌 누난데 한 번만 봐 달라고 조르고 있다. 닥터 김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I. 당신이 만일 닥터 김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성감별해 준다 ② 성감별해 주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I-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한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Ⅱ. 다음 진술들은 이 상황에 대한 당신의 견해나 입장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V표 하세요)

진 술 내 용	정말 그렇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법이나 관행에 따라 해결할 사안 이지 도덕이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② 이 문제는 누님 개인사정이고 누님 집안문제이기 때문 에 선불리 개입하다가는 자칫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					
③ 결정을 내리기 앞서 이 상황 속에는 어떤 문제들이 내 포되어 있는가라는 점까지 생각하다가는 제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④ 나도 밀린 일이 많고 환자진료에 정신이 없게 된다면 사촌 누님의 문제까지 고민할 겨를이 없고 또 그럴 이 유도 없을 거라고 본다					
⑤ 이런 문제에서는 관련된 사람들 모두의 입장을 생각하 기보다는 전문가인 의사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야 한다고 본다					

* 문항 분석결과, ②번 문항은 최종 검사지 문항에서 제외됨

Ⅲ. 당신이 닥터 김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다음의 항목들은 이 상황에서 성감별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고려할 사항들입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해당란에 V표 하시오)

위 상황에서 고려해 볼 사안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나의 성감별이 낙태문제로 연결될 것인가의 문제에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② 또 딸을 낳게 되면 누님이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점이 걱정된다					
③ 성감별을 해 주어 원하는 아들을 낳게 되면 누님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리란 점에 신경 쓸 것이다					
④ 또 딸을 낳게 되면 누님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⑤ 친척에게 딱 한번 해주는 성감별이 사회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된다					
⑥ 성감별을 해줌으로써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⑦ 딸이라고 하여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할 태아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인다					
⑧ 누님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5대 독자인 누나 집안의 대가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⑨ 누님의 모처럼의 청을 거절하면 누님이나 다른 친척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마음에 걸린다					
⑩ 한 번 누님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탁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점이 걱정된다					
⑪ 또 딸을 낳게 되면 시댁에서 누나는 계속 힘들게 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⑫ 성감별 결과 딸이라면 낙태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앞으로 아들을 임신하기 전까지 몇 명의 여아가 낙태될지 모른다는 점에 신경을 쓸 것이다					

* 문항 분석결과, ⑥, ⑧, ⑨, ⑩번 문항은 최종 검사지 문항에서 제외됨

* 감수성 점수 산출 방법

- 딜레마 1개로 구성되며, 감수성 하위요소는 모두 3개임
- 1개 하위요소에 문항 4개씩 배치되어 총 12개 문항
- 5점 척도이므로 총점은 60점(각 하위요소의 만점은 20점)

부록 4

문미희(2004)의 일반용 인권감수성 검사지

1. 가족회의

정OO 할머니는 올해 연세가 65세로 10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줄곧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아왔다. 아들 내외는 효자는 소문날 만큼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할머니는 여생을 함께 보낼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 노인 복지회관에서 만나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할아버지로부터 얼마 전에 청혼을 받은 상태이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식들에게 좋은 사람이 있어서 재혼을 하겠다는 언질을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 자식들은 가족회의를 열었는데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I.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①	별로 중요하 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대체로 중요 하다 ④	매우 중요 하다 ⑤
1. 할머니는 가족들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2.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					

II. 할머니가 재혼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줄 수 있다.					
2. 할머니가 의미 있는 여생을 보낼 것이다.					

III.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할머니의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다.					
2. 가족들의 결정사항에 따르시도록 한다.					

2. 김 씨의 구속

밤늦게 귀가하던 한 남자가 괴한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범인은 얼굴에 복면을 한데다가 뚜렷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고 있던 경찰은 고민에 빠졌다. 그런데 한 목격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범인으로부터 보복 당할까봐 신고를 못했는데 자신이 목격한 범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김씨와 체격과 용모가 비슷한 것 같다는 제보를 하였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도망가기 전에 붙잡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바로 체포하여 구속하였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김씨가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으며, 따라서 구속되었던 김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Ⅰ.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대체로 중요 하다 ④	매우 중요 하다 ⑤
1. 일단 목격자의 말을 믿고 김 씨가 도망가기 전에 체포하여 구속해두는 것이 우선이다.					
2. 확실한 증거 없이 범인으로 지목하여 체포,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Ⅱ.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 확실한 증거 없이 체포, 구속함으로써 김 씨를 억울하게 할 수도 있다.					
2. 범인일지도 모르는 김 씨를 놓치지 않고 신속히 조사할 수 있다.					

Ⅲ.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 범인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놓치기 전에 일단 체포하여 구속한다.					
2. 좀 더 정황을 알아보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구속한다.					

3. 장애인 학교

최근에 부녀회장인 소지원 씨에게는 고민이 생겼다. 아파트 근처에 있는 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자폐아 학교로 인가해 주었기 때문이다.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면 일반 학부모들이 이 동네로 이사 오기를 꺼려하여 땅값과 집값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때에 큰 경제적 손실을 잃게 된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냥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교육청에 진정서를 내자는 의견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했다. 어떤 주민은 당장 시위를 하러 나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Ⅰ. 위 사건을 지켜 본 이웃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대체로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 하다 ⑤
1. 지역 주민들 다수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					
2. 장애인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					

Ⅱ. 만약 주민들의 반대로 자폐아학교의 인가가 취소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 장애인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교외에 있는 학교까지 통학을 해야 한다.					
2. 다수의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게 된다.					

Ⅲ.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행동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 장애인 학교를 세우는데 찬성한다.					
2.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막자는 대다수의 결정에 따른다.					

4. 려 씨의 임금

조선족 노동자인 려00씨는 한국의 공장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려 씨가 다니는 공장이 부도가 나서 문을 닫게 되었다. 다행히 공장 주인이 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을 일부나마 지급할 수 있게 되었지만, 려 씨는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런데다가 대부분의 다른 노동자들은 려 씨에게는 임금을 배당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였다. 왜냐하면 려 씨의 처지를 고려하여 려 씨에게도 임금을 준다면 려 씨에게 배당한 돈만큼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I.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 지 않다 ①	별로 중요하 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대체로 중요하 다 ④	매우 중요 하다 ⑤
1. 려 씨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임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인 노동자와는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II. 위 사건에서 려 씨에게 임금을 배당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이 일했지만 똑같은 대가를 받지 못해 억울할 것이다.					
2. 다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III.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려씨와 함께 일한 노동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대다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한다.					
2.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려 씨가 자신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공장 건립

지방의 한 중소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지역은 특별한 산업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관광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지역주민들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전자회사에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에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을 건립하겠다고 시에 요청을 하였다. 시장은 공장이 들어서면 막대한 고용창출을 가져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 전체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장은 용도를 변경하여 공장건립을 허가해줄까 고민하고 있다.

Ⅰ.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대체로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하다 ⑤
1.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					
2. 자연녹지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Ⅱ. 시장이 공장건립을 허가해줄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 쾌적한 환경을 잃게 될 것이다.					
2. 지역 주민들이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이다.					

Ⅲ.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시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 공장건립 추진활동에 적극 참가한다.					
2. 환경파괴 문제를 홍보하여 공장건립을 저지한다.					

6. 감원 대상

정숙 씨는 S여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5년 전 OO주식회사에 입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제품 디자인실에서 열심히 일하여 회사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사내에서 만난 동료직원과 결혼을 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5~600명의 사원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며칠 후, 상사는 정숙 씨를 자리로 부른 후 현재 직원수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가정을 혼자 책임지고 있는 남자 사원보다는 정숙 씨처럼 맞벌이 가정의 여성이 일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사직을 권한다. 상사와의 면담 후 자리로 돌아온 정숙 씨는 고민에 빠진다.

Ⅰ. 위의 감원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대체로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 하다 ⑤
1. 남성가장의 실직은 많은 가정 경제의 파탄을 가져오게 된다.					
2. 여성만을 감원하는 것은 여성이 가진 일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Ⅱ. 다음은 위와 같은 감원이 실시될 때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 남성 가장의 실직을 막아서 가정경제의 충격이 덜 심할 것이다.					
2.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 직원이 일할 기회와 자기실현의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Ⅲ. 다음은 고민에 빠진 정숙씨가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당신이 정숙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 노동조합에 이 사실을 알리고 불합리한 감원원칙에 항의한다.					
2. 회사 경영난상 어쩔 수 없으므로 사직하고 퇴직금으로 새 일을 시작한다.					

7. 국가 의료정보 센터 설립

다음 소식은 국가 의료정보센터 설립 소식입니다. 오늘 정부에서는 20XX년까지 국가의료정보 센터를 설립하고 전 국민의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료, 처방, 투약 기록을 의료정보 센터로 보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의료정보는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방문하였을 때 더욱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한, 수집된 의료정보는 각종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는 데 활용되어 국민건강 증대와 수명연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I. 위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대체로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 하다 ⑤
1. 정부는 국민건강 증대를 위하여 국민의 의료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2. 의료정보 유출로 야기되는 환자들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II. 다음은 의료 정보 센터의 설립 후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다음 두 가지 사항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 검사나 진료에 드는 시간이 줄어들고 정확한 진단을 도울 수 있다.					
2. 알리고 싶지 않는 질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III. 당신은 국가 의료정보 센터 건립 여부를 결정하는 공청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의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반대한다.					
2. 국민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적극 지지한다.					

8. 의사의 고민

신OO 씨는 희귀한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다. 그동안 신 씨를 담당해왔던 의사의 말에 따르면, 신 씨가 임신할 경우 유전병이 태아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동일한 병을 가진 장애아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신 씨는 성에 대한 관념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도 부족하여, 신 씨의 부모는 늘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그래서 신 씨의 부모는 차라리 딸에게 6불임수술을 시켜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의사에게 수술 부탁을 하였다. 이 부탁을 받은 의사는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Ⅰ.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대체로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 하다 ⑤
1. 신씨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신체의 일부를 수술해서는 안 된다.					
2. 동일한 유전병을 가진 자녀를 낳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 한다.					

Ⅱ. 의사가 불임수술을 해줄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 유전병을 가진 자녀를 낳는 불행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자녀를 낳는 능력도 상실하게 된다					

Ⅲ.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의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 자녀의 불행을 막기 위해 불임수술을 시켜준다.					
2.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음을 부모에게 주지시킨다.					

9. 진료자 명단

한OO 씨는 시립 정신병원의 병원장이다. 얼마 전 정신질환자들의 교통사고 비율이 늘었다는 보도가 있는 후로, 한 씨는 최근 2년간 정신과 진료를 10회 이상 받았던 진료자 명단을 뽑아 달라는 경찰서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에게 수시 운전면허 적성시험을 보도록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어,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경찰의 부탁을 받은 한 씨는 진료자 명단을 통보해주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I.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대체로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하다 ⑤
1.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개인의 진료기록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II. 한씨가 진료자 명단을 통보해줄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 정신질환자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사실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2. 교통사고 위험인자를 가려내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III.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 공익을 위해서라도 개인의 진료기록을 통보할 수 없다고 대응한다.					
2.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진료기록을 통보해준다.					

10. 황 판사의 고민

김 씨는 지금까지의 형기합계가 5년이 넘는 절도 전과 5범으로 최근에 징역형을 마치고 석방되었다. 그런데 김 씨는 동일한 죄로 5번이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재범의 위험이 있는 인물이다. 김 씨가 다시 사회에 나가면 언제 또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 국가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교화할 책임이 있으므로, 김 씨에게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면 김 씨는 징역형을 마쳤지만 다시 보호감호소에 수용되어야 한다. 김 씨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황OO 판사는 김 씨에게 보호감호 처분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I.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대체로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하다 ⑤
1.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일이 우선 시되어야 한다.					
2. 범죄의 재발가능성을 이유로 구금해서 는 안된다.					

II. 황 판사가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줄어든 것이다.					
2. 범죄의 재발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금은 더 큰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III.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황 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 재범하지 않은 김씨에게 보호감호 처분 을 내리지 않는다.					
2. 김씨의 교화를 위해 보호감호 처분을 내린다.					

■ 지수 산출 방법

- 각 딜레마다 인권 문항과 비인권 문항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인권 문항에 대한 평정치가 비인권 문항의 평정치보다 높을 경우에만 인권 문항에 대한 평정치를 인정하여 인권 감수성 점수를 계산함
- 비인권 문항에 대한 평정치가 인권 문항의 경우보다 높을 경우에는 0점 처리함
- 문항당 최저 0점, 최고 5점을 받을 수 있고, 각 딜레마다 질문 3개가 있으므로 한 딜레마다 최저 0점, 최고 15점을 받을 수 있음
- 총 10개 딜레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최저 0점, 최고 150점임

부록 5

이지혜(2005)의 도덕적 감수성 검사

상황 1

심각한 사고를 당한 23살의 남성이 지금 막 당신의 병원으로 실려왔다. 그의 의식 상태는 매우 희미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는 현재 심각한 혈액 손실로 인해 수혈이 필요하다.

그의 부모에 의하면 환자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가졌다고 한다. 이 종교에서는 수혈을 금지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교인이 아닌 부모는 수혈을 원하고 있다.

1. 이 상황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2. 나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① 수혈을 지시한다() ② 잘 모르겠다() ③ 수혈을 지시하지 않는다

2.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황 2

아기 A는 미숙아이다. A는 23주만에 태어났으며(보통 40주), 몸무게는 480g(보통 3000g)이다. A는 현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있으며, 두개골 내출혈에 대한 수술이 시급하다. 수술을 해서 A를 살릴 수 있다 할지라도 수술후 정신지체가 될 가능성이 50% 정도 있다. A의 엄마는 17세로 담당 의사인 당신에게 수술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녀는 아기 아버지와의 연락을 원치 않으며,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는다.

1. 이 상황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2. 나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① 수술을 한다 () ② 잘 모르겠다 () ③ 수술을 하지 않는다

2.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황 3

말기 위암으로 인해 삶이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74세의 여성이 있다. 그녀는 호흡 곤란을 겪고 있고, 의식수준은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급성 폐렴까지 앓고 있다. 현재 이 환자가 위급한 상태여서 당신은 최대한 빨리 항생제를 투여할지 하지 않을지, 호흡기를 부착할지 말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기도 삽관과 호흡기를 부착할 경우 환자의 생명은 계속 연장될 것이다. 환자의 가족이 병원에서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며 상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가족이 의사의 결정을 따를 수 있도록 어느 방향으로든 설득을 해야 한다.

1. 이 상황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2. 나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 ① 모든 처치를 다 한다()
- ② 잘 모르겠다()
- ③ 모든 처치를 다하지 않는다()

2.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검사 소요 시간: 20~30분
- 응답자의 반응을 채점 기준에 따라 A, B, C 등 세 영역으로 나누고 1차 채점
- 16개의 채점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2차 채점
- 각 딜레마당 16점, 만점 48점

부록 6

청소년 도덕성 지수 개발 세부 논의 과정

1. 1차 회의

- 일시: 2011.5.6. 16:00-18:30
- 장소: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203호
- 참석자: 이인재, 최창욱, 서규선, 박주화, 홍성훈, 손경원, 김경순, 김항인, 김민재, 김남준, 변순용, 윤영돈, 한혜민, 박균열, 김국현, 박병기, 안초록

▲ 레스트의 4구성 요소 명확화

- 감수성, 판단력, 동기화, 품성화 요소별로 개념 및 하위 요소에 대해 한 달간 연구한 것을 발표
- 각 팀마다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에 중첩된 것은 없는지 확인
품성화와 동기화 두 요소가 중첩된 부분이 있음

도덕적 품성화: 지속적인 실행력에 초점을 두고 한 개인의 내면적인 힘을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품성화는 그냥 심리적인 특성으로서 최대한 가치중립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러나 도덕적 품성화라고 이름 붙인 이상 윤리적 접근을 배제한 가치중립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음.

도덕적 동기화 : 도덕적 가치에 대한 헌신 정도를 두고 얼마나 도덕적인 가치에 우선권을 두고 실행하는지를 묻기로 함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품성화와 동기화를 엄격하게 구분 짓지 않고 있는데 왜 엄격한 구분을 두어야 하냐는 질문이 나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레스트의 4구성 요소에 입각하여 일단 3요소와 4요소를 개념 분리해놓고 융통성을 가지고 진행하여, 결과를 보고 판단해 보도록 결정함.

▲ 도덕에 대한 개념 확인

- 레스트는 ‘도덕=정의’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음
도덕에 관한 개념 해석은 서구 사회 관점이 아닌 한국적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수용 가능한 설문을 개발하고자 하는데에 동의함

▲ 검사 방식

- 수준: DIT검사 수준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비교적 쉽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설문을 만들기로 함
- 방식: 다인수 검사와 소수 샘플 심층 검사를 둘 다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다인수 검사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그러나 1차년도 연구에서는 다인수 검사를 통해 한국 청소년의 전체적인 도덕성 발달의 수준을 가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림. 소수 샘플 심층 검사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초안 작성시에는 포함시켜 보기로 함.
- 총 설문 페이지: 한 요소에 3개의 스토리로 구성하기로 함. 하나의 스토리에는 한 페이지를 넘지 않는 정도의 질문으로 만들기로 함. (4개 요소이기 때문에 총 12페이지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1차와 2차 설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함)
- 대상: 예비조사는 1000 명 정도로 하자는 의견과 200여 명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본을 줄이더라도 더 집중력있게 검사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으로 통일.
- 척도: 7점, 9점 척도는 너무 복잡하고 5점 척도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수용.
- 시간: 1차 한 시간 (중학교 45분 기준), 2차 한 시간 (중학교 45분 기준)
- 내용: 지루함을 피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문화를 녹여낸 설문을 개발하자는 의견.

▲ 기타 사항

- 일관성 여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내면적인 덕성, 즉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계기가 되는 요소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도덕성 총점을 낼 것인가, 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총점은 내지 않기로 결정함. 영역별 점수를 제시하는 것이 합산 점수를 제시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
- 4개 영역 중요도 (선호도) 조사도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음.
-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6문제 정도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 뽑는 방식

둘째, 검사를 한 번 실시하고, 다시 실시해서 일치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방식 셋째, 기존 검사와 이 검사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방식이 논의되었고, 첫 번째, 두 번째 방식이 채택되었음.

초안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오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팀에서 더욱 성실하게 연구하고, 6월에 다시 모이기로 결정하고 회의를 마칩

2. 2차 회의

- 일시: 2011.6.24(금) 15:00-25(토) 12:00
- 장소: 남한강 일성 콘도
- 참석자: 전체 팀 21명 연구진 중 17명 참석, 최창욱 박사(청소년정책연구원)

▲ 검사도구 문제점 분석

- 감수성:

1. 0.1초 딜레마는 너무 어려워서 빼는 것이 좋겠다.
2. 수행평가 베끼기에서 친구가 수행평가를 보여주는 것을 제안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김치국부터 마시는" 상황이 되어서는 부자연스럽다.
3. 3개 요인별로 문항을 2개씩 하되, 하나는 moral, 다른 하나는 neutral하게 하여서 두 개를 비교하여 validation을 확보한다 -> M 문항 대응
4. 전반적으로 문항을 쉽게 이해가능하도록 고친다. 이 때, 되도록 의문문은 피한다.
5. 척도를 통일한다. (예:그렇다~전혀 아니다 or 중요하다~중요하지 않다.

- 판단력:

1. 본 연구에서는 도덕판단력 검사와 더불어 품성화, 감수성, 동기화 검사를 함께 개발하고 이를 검사하고자 하므로, 검사시간의 통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한국판 DIT 간편형을 사용하여 20~30분 정도 도덕판단력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DIT 검사이 경우 이미 내용타당도와 준거 타당도 검증을 거친 검사도구이므로 신뢰도만 보면 되는데, DIT의 경우 신뢰도에 있어서 한국판 간편형은 내적 일치도가 중

학생의 경우 .56, 고등학생의 경우 .53으로 보고되었다.

－ 동기화:

1. 동기화 팀은 하위요소를 도덕적 중심화와 온전성 2개로 나누고 있고 질문도 중심화에 3개, 온전성에 2개로 묻고 있는데, 다른 팀처럼 3개 항목을 2개씩 질문하는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2. 스토리가 길고 불분명해서 내용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스토리 수정이 필요하다.
3. 질문 중에 번역투로 이루어진 것이 많아 어색하게 느껴진다.
4. 주인공 이름을 스토리마다 같게 한 것이 어색하고, 성별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5. 레스트가 언급한 동기화가 곧 '도덕적 가치를 다른 가치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거기에 맞는 하위 영역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문항들이 레스트가 직접 언급한 내용들과 적합하게끔 연결시켜야 한다.

－ 품성화:

1. 품성화 하위 요소를 절제-만족지연능력, 용기,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4개로 나눴는데, 다른 팀처럼 3개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절제-만족지연능력은 인내로 바꾸고, 용기와 자기효능감을 묶어서 자아강도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은 수행기술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2. ‘나는 ~을 할 것이다’ 를 빼는 것이 좋겠다. 6개의 질문에 허구 문항을 추가하여 (앞, 뒤, 랜덤 순서로) 답변의 일관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좋겠다.
3. 스토리가 많은데 사전 조사를 통해서 3개의 스토리로 압축하도록 한다.
4. 스토리가 길고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공통: 검사지 양식을 통일하기로 하였다.

▲ 예비검사 방안

1. 인원 및 대상: 총 2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한다.

중학교 2학년 남자 60명	중학교 2학년 여자 60명
고등학교 2학년 남자 60명	고등학교 2학년 여자 60명

2. 조사는 예상 소요시간(2H)과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하지만 그 간극이 1주일 이상되어서는 안된다.

3. 조사대상학교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사전 공문을 발송한다. 이때 질문지는 “추후 협조” 라고 해서, 사전교육이 되지 않도록 한다.
4. 조사는 한꺼번에 실시하고, 자료처리(입력-분석)는 각 팀별로 분담해서 한다.
5. 질문지는 PM사무국에서 종합해서 인쇄한다. 스테이플러로 철을 할 때에는 인구통계 변인과 감수성을 한 묶음으로 하고, 판단력은 별도로 한 묶음으로 해야 한다.
6. 선물은 두 가지인데, 우선 필기구는 질문지 나눠주기 전에 사전에 배포하여 감사표시를 한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한 사람에게는 끝나고 나서 상품권을 나눠줄 것이라는 공지를 한다. 조사가 실제 끝이 나면 문화상품권(5천원)을 제공한다.
7. 질문지는 조사 내용이 다르게 실린 2개씩의 이야기로 꾸며져 있으므로, 설문지는 조사 대상별로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배포 전 설문지 유형을 확인하여 배포한다.

▲ 청소년 도덕성 척도개발을 위한 신뢰성 타당도 검증 계획서

1. 사전검사: 연구진 자체적으로 실시

--전반적으로 어려운 정도, 답안작성 중 질문사항 등 내용/절차 점검

2. 신뢰도 검증: 신뢰도(reliability)는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대상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안정성(st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정확성(accuracy)이라고도 표현한다. 이는 어떠한 측정대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경우 동일한 결과값을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여러 번 반복 측정해서 얻는 측정결과값들의 분산으로 신뢰성을 판단 할 수 있다.

가. 내적일치도(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α): 동일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측정도구나 항목을 개별적으로 취급하여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여러 개의 측정항목 중에서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항목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갈등문항에서 연구자가 필수적(수치상 신뢰도 하락이라도 중요할 경우)이라고 판단할 경우 문항기술을 조정해야 한다. 계수를 산출해서 여러 항목들로 구성된 측정방법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0.6에서 0.7이상이 되면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 각 연구팀 기술

나. 반분신뢰도(split-half method reliability): 측정도구를 임의로 반으로 나누어 각

각 독립된 두개의 척도로 사용함으로써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조사항목의 반을 가지고 조사결과를 획득한 다음, 항목의 다른 반쪽을 동일한 대상에 적용하여 얻은 결과와 비교하는 방법이다. 반분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측정도구가 같은 개념을 측정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며, 양분된 각 측정도구의 항목수는 그 자체가 완전한 척도를 이룰 수 있도록 적어도 8개문항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반분하는 방법에는 짝수항목과 홀수 항목으로 반분하거나, 무작위적으로 항목을 반으로 추출하여 나머지를 또 하나의 척도로 만드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 보통 Spearman-Brown Reliability Coefficient를 이용한다. ==>각 연구팀 기술

다.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method)**: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대상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두 번 측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때 두 측정값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도출된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로 신뢰성의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측정도구를 두 번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루어진 측정이 두 번째 측정에 영향을 미쳐 신뢰도가 실제보다 높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측정시간 간격을 유의해야 하는데 보통 2주에서 4주정도의 시간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또한 이 신뢰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값이 변화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어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낮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검사 방법에 의한 신뢰성 측정방법은 실제 신뢰성을 과소 측정하거나 과대 측정할 가능성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으나 측정도구 자체를 직접 비교할 수 있고 적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주간격으로 재 측정을 하여 신뢰성을 파악한다. 만약 측정 결과의 상관관계가 0.8이상 수준이면 그 측정도구는 신뢰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검증과정 길어 사실상 어려움.

3. 타당도 검증: 타당도(validity)는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타당도는 내적타당도(internal validity)와 외적타당도(external validity)의 2가지 종류가 있으며 내적타당도는 실험이나 연구에서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의미하고, 외적타당도는 이렇게 측정하여 얻은 실험이나 연구결과를 실제 상황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타당도를 말한다.

(1) 내적타당도(internal validity): 실험이나 연구에서 다른 외생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내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인이 되는 변수의 작용에 의한 효과만을 정확히 추출할 수 있는 조사설계와 외생변수들에 대한 철저한 통제나 제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내적 타당도가 세부적인 유형으로는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기준에 의한 타당도, 개념타당도 등이 있다.

A.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안면타당도라고도 하며, 이는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정확한 속성값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도를 말한다. 즉, 측정도구가 대표성이 있는 척도내용을 표집했는가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타당도는 연구자나 측정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된다. 이는 설문본의 본조사 이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각 문항의 의미전달의 정확성 또는 소요시간 이해를 정도를 조사하여 내용이 중복되거나 어려운 문항은 제외 후 본 조사를 실시한다. ==>각 연구팀의 내용에 대해, 관련 타 팀의 내용 검증 등으로 보완

B. 준거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 특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측정의 효과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려는 속성이 그 속성의 기준이 되는 것과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기준을 무엇으로 잡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공존타당도(concurrent validity)와 예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가 대표적이다. 전자는 현재의 특정현상을 측정하는데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어느 정도 정확한가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존타당도를 통하여 기준에 의한 타당도를 검증하며, 이는 본 척도의 결과와 기존연구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기전달한 바 있으나, 팀별 의견이 없었음. 팀별 주제에 맞는 기존 준거척도 제출하여, 본 조사시 동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C.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개념타당도(concept validity)라고도 하며, 추상적인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도구가 얼마나 적절하게 구성해서 측정하였는

가를 나타내는 타당도이다. 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검사의 변량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타당도를 알아보고자 할 때 얻어진다. 이는 이해타당도(nomological validity),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로 세분화된다.

- ① 이해타당도(nomological validity): 특정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며, 관심이 있는 특정개념과 관련이 되는 개념(유사한 다른 여러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 이론적 구성도를 작성하여 관련된 개념들로 구성된 모델에 측정방법을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들 개념들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일수록 이해타당도가 높은 측정방법이 된다.
- ②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대한으로 상이한 두 가지 측정방식을 개발하고 이에 의하여 얻어진 측정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중 타당도가 높다는 것은 같은 의미를 지닌 개념을 측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다중 항목으로 복수로 변수를 사용해도 된다.
- ③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서로 상이한 개념을 동일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결과값들 간에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동질성 전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구분
 - 동질성 전제 안된 경우: 우월집단, 정상집단, 열등집단(범죄자 등)

따라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발달변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학년(중1, 중2, 고1, 고2, 대학생)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하여 시행하며, Scheffe 사후검증을 이용하여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본다. 또한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팀별 대조집단 선정에 유념하여 집단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다.

(2) 외적타당도(external validity)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이 실험과 유사한 다른 상황이나 현실세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가 즉, 일반화가 가능한가에 관한 타당도를 말한다. ==>각 연구팀 위임

협조: 각 연구팀에서는 연구간의 신뢰도/타당도 검증을 위해, 연구팀내 조사시행 전담자 1명 을 지정해서 PM사무국으로 통보 요망

❖ 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 테스트는 이번엔 하지 않기로 하였다.

(1)- A 내용타당도는 각 팀별로 학부 3, 4학년에게 풀어 보도록 해보고 코멘트를 받도록 하였다.

▲ 설문조사를 위한 자체 점검표 제작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현황	학교	
	날짜	
	참석자 유형	
	참석자 수	
2. 결과	회수부수	
3. 설문지 배송	배송일	
	배송 방법	
4. 조사자 (학교 선생님)	이름	
	연락처	
5. 조사담당자	이름	
	연락처	
6. 기타	학생들의 질문이 가장 많았던 문항	

3. 3차 회의

- 일시: 2011년 7월 16일(토) 17:00-20:00
- 장소: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718호
- 참석자: 이인재, 류숙희, 윤영돈, 서채원, 박균열, 홍성훈, 변순용, 손경원, 김민재

▲ 허위문항 판단방법

- ① 예를 들어 동기화의 경우 4번 문항과 7번 문항이 정문항과 역문항의 관계인데, 역문항의 경우 역코딩보다는 정코딩으로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는 의견 제시

② 정문항과 역문항의 검사 결과, 그 차이가 3점 이상이 될 경우 허위문항으로 판단

★ 논의 결론

- ㉠ 역코딩을 하고 난 뒤 중앙(3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리가 되지 않고 한쪽으로 쏠릴 경우에는 허위문항으로 판단
- ㉡ 2점 차인 경우 중앙(3점)이 관련될 경우에는 직접 그 문항과 설문지를 조사하는 작업 필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 채점 방식

- ① 전체 채점 방식을 0점-4점으로 하는 방안과 1점-5점으로 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괜찮은가.
- ② 실상 저 두 가지가 통계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 의미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 제기

★ 논의 결론: 0, 1, 2, 3, 4의 방식으로 통일

▲ 인구통계변인

- ① 3번과 4번의 부모 학력 문항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 제시
- ② 5번과 7번은 빼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 제시
- ③ 6번에서 ‘기독교’ ⇒ ‘개신교’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제시. 한편 6번 문항을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만 측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 제시

★ 논의 결론

- ㉠ 5번과 7번은 뺀다.
- ㉡ 6번 문항은 사용하되, 채점할 때는 군집 채점 방식으로 하여 종교가 있느냐(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를 묶어서) 없느냐로 통계

▲ DIT 관련 사항

- ① P 지수를 쓰지 않을 것이면 순위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제시
- ② ‘한 부인’과 같은 인칭 대명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③ DIT는 전체적으로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④ 판단력 검사를 맨 앞이나 맨 뒤로 빼서, 예시문을 먼저 제시하고 검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제시, 한편 DIT에서 P 지수 관련하여 (3)번 문항을 빼면 예시문도 필요 없다는 의견 제시

★ 논의 결론

- ㉠ DIT는 정형화된 검사이니만큼 그대로 사용하며, 또한 P 지수를 위해 순위조사도 그대로 사용한다.
- ㉡ 그러나 전체적인 순서에서 판단력 검사는 맨 뒤로 빼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 기타 및 행정사항

- ① 데이터 클리닝의 기준 선정 필요성 제시
- ② 각 팀마다 허위 응답자를 조사하고, 로 데이터(raw data)와 허위응답자를 뺀 데이터를 비교분석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
- ③ 두 반 정도(60명)만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반분 신뢰도)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 제시
- ④ 각 영역별 총점이 통일되면 혹은 환산점수를 사용한다면, 매해 검사할 때 각 영역의 발달 정도를 검사할 때나 다른 부분에서도 비교가 용이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제시
- ⑤ 신뢰도(내적 일치도) 검사를 할 때 측정 영역별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⑥ 조사지 첫 장에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 조사 설문 조사>를 ⇒ <생활에 관한 설문 조사>로 수정, 또한 <7-12개씩의 문항> ⇒ <여러 문항>으로 수정할 필요성 제시
- ⑦ 각 영역별 검사 지시문(예-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와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도덕적 감수성 팀의 예(특히 ‘친구의 심부름’)를 따라 작성해달라는 요청
- ⑧ 최종 보고서는 각 팀마다 8월 말까지 작성하되, 이를 위한 모임을 8월 중순경 가질 예정임

4. 4차 회의

- 일시: 2011년 8월 21일(일) 15:00-20:00
- 장소: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718호
- 참석자: 이인재, 박균열, 홍성훈, 김향인, 윤영돈, 김남준, 손경원, 김연중, 안초록, 김민재

▲ 도덕적 판단력

- ① 평균이 39.52로 지나치게 낮은 원인 분석: ‘재검사’에서는 원안대로 우선 예시문을 제시하고, 답안 형태 역시 원안을 유지하며, 검사 담당자는 검사에 앞서 매뉴얼에 따

른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는다. 또한 학생들의 피로도를 감안한다.

- ②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는 이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검사도구이므로 여기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요구되진 않지만, 최대한 원안대로 할 필요성이 있다.
- ③ 허위문항 제외 문제, 즉 결측치가 12명인 것은 너무 적게 제외한 것이다.
- ④ 반드시 아이디(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허위문항을 삭제할 때에도 아이디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Blank 상태로 놓고 검사를 진행한다.

▲ 도덕적 감수성 / 동기화 / 품성화

- ① 답안에 대한 채점 방식을 지난 회의에서는 0-4점으로 결정하였으나, 다시 1-5점으로 환원한다.
- ② 각 지수 산출 과정에서, 확인적 요인분석(감수성), 탐색적 요인분석(동기화/품성화)을 통해, p값이 .05초과는 우선 제외하고, 나아가 Beta값이 0.3미만인 항목은 삭제하고 난 뒤에 종합지수를 계산한다.
- ③ 요인 분석 결과 상정한 요인이 잘 묶여지지 않을 경우 문항을 조정한다.
- ④ 2년차에는 1년차 때와 달리 고등학교 1-2학년을 함께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 기타 사항

- ① 최종보고서에는 지금까지 진행하였던 토의 관련 장소 / 시간 / 주제 / 팀별 논의과정 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② 2-3년차 향후 연구 소요 및 연구 방향을 제시하며, 관련 추후 연구나 메타 연구는 3년차에 제시한다.
- ③ 최종보고서 맨 앞의 총론에서 4요소의 상관관계를 개괄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 ④ 인구통계변인에 따른 분석시, 학교급, 성별, 도덕과목선호도, 종교 유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 변수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미도를 표기해서 분석하되, 의미가 없더라도 표시하고 분석에 포함한다. 다만 상호작용분석시는 성별*학교급별교차검증만 포함한다.
- ⑤ 1년차의 작업에서는 모든 팀의 노력을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에 쏟아야 한다.

▲ 행정사항

- ① 도덕적 판단력 재검사는 8월말/9월초에 실시하고, 남녀공학 고교/중학교 각 1개 학교 각 2개 반씩 실시한다.

- ② 도덕적 감수성 팀의 통계 분석 자료를 모델로 하여 다른 팀들도 통계 분석 자료를 구성한다.
- ③ 10.27(목)-28(금) 한국윤리교육학회 국제세미나 중 28일 오후 세션에서 '청소년도덕성검사도구' 1년차 결과를 요약해서 발표하게 되는데, 발표 요지는 청소년정책연구원에 기제출(9.30)한 보고서를 요약 작성, 실제 발표시에는 ppt형태로 15분 내외 발표, 토론 3명 정도(15분).

부록 7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1차년도안)

- 감수성·동기화·품성화·판단력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윤리교육학회 연구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은 없습니다. 응답하신 개별 내용들은 컴퓨터로 처리되어 통합적으로 분석될 뿐,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총 12개의 짧은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7~12개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마다 본인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확한 응답이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솔직한 생각을 성실하게, 빠짐없이**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도중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설문 담당 선생님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연구책임자: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박균열 (경상대학교 교수)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부분에 '√' 표시해 주십시오.

1. 당신은 몇 학년 입니까?

① 중학교 2학년

② 고등학교 2학년

2. 당신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3. 아버지의 학력은?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

4. 어머니의 학력은?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

5. 도덕, 윤리 관련 과목을 배운 경험이 있는 경우 그 과목에 대한 흥미도는?

① 매우 재미있다

② 재미있다

③ 보통

④ 재미없다

⑤ 전혀 재미없다

6. 본인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기타종교()

⑤ 없다

7. 친한 친구의 수는?

① 거의 없다

② 1~5명

③ 6~10명

④ 10~20명

⑤ 20명 이상

“친구의 심부름”

철오는 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성격이 난폭하기로 소문이 나있다. 그래서 누구나 그의 눈치를 보고, 그의 말이라면 아무도 거역하지 못한다. 거역하면 그가 괴롭히는 바람에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철오가 점심시간에 영배를 찾았다. 영배는 철오와는 정반대로, 온순한 성격에다 몸이 약하고 싸움도 잘 하지 못한다.

철오는 영배에게 배가 고프다면서 말하면서, 학교 앞 빵가게에 가서 빵을 사오면 좋겠다고 넌지시 말한다. 말이 부탁이지 강요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철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배는 잠시 고민에 빠진다. 눈 딱 감고 그냥 빵 한번 사다주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럴 순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영배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영배의 선택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은 아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친구를 위한 일인데, 해주면 서로 편하고 좋다	⑤	④	③	②	①
2. 한번 빵을 사다주면 철오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친구를 위한 일이라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⑤	④	③	②	①
4. 영배는 빵을 사다주면서 속이 상하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만일, 영배가 철오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괴롭힘을 당하게 되자,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5. 내가 직접 나서서 도와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6. 도와줄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굳이 내가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본다	⑤	④	③	②	①

- 위의 “친구의 심부름” 이야기는 흥미 있었는가? __ (1) 흥미 있었다 __ (2) 흥미 없었다
- 위의 “친구의 심부름”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웠는가?
__ (1) 이해하기 쉬웠다 __ (2) 이해하기 어려웠다
- 만일, 당신이 영배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__ (1) 심부름 해준다 __ (2) 심부름 하지 않는다 __ (3) 잘 모르겠다
- 위와 같은 일들은 요즘 당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__ (1) 그렇다 __ (2) 그렇지 않다 __ (3) 잘 모르겠다

“절박한 수행평가”

오늘은 국어 수행평가 과제를 검사받는 날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노트 한 페이지에 정리해서 내는 과제물이다, 그런데, 민지는 다른 과제 때문에 여태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금은 아침 조회시간이고, 국어 시간은 5교시..... 점심시간 때까지 다른 친구가 과제를 보여준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다행히 의견을 정리해서 내는 간단한 숙제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 과제물에서 단어만 몇 개 고쳐서 내면 별 문제없이 넘어갈 것이 확실하다,

마침 가장 친한 친구인 가형이는 과제를 다 해왔다, 꽤 잘 한 과제물이다, 게다가 가형이는 민지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과제물을 보여주려고 한다, 가형이의 과제에서 몇 문장을 바꿔서 내면 될 것 같다, 이제 남은 시간은 4시간 남짓... 스스로 과제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이번 과제는 점수 배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다른 친구들은 흔히 하는 일 아닌가? 하지만 민지는 왠지 망설이고 있다, 민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민지의 선택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은 아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친구 과제를 약간 고쳐서 내는 것이 감점당하는 것 보단 더 나은 일이다	⑤	④	③	②	①
2.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⑤	④	③	②	①
3.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본다	⑤	④	③	②	①
4. 남들이 다 하는 일을 나도 하는 것은 내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다	⑤	④	③	②	①
5. 과제를 한번 그렇게 쉽게 해결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게 문제다	⑤	④	③	②	①
6. 남의 과제를 보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에게 피해나 손해가 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1. 위의 “절박한 수행평가” 이야기는 흥미 있었는가? __ (1) 흥미 있었다 __ (2) 흥미 없었다

2. 위의 “절박한 수행평가”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웠는가?

__ (1) 이해하기 쉬웠다 __ (2) 이해하기 어려웠다

3. 만일, 당신이 민지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__ (1) 가형이의 과제를 보고 한다 __ (2) 보지 않고 혼자 한다 __ (3) 잘 모르겠다

4. 이런 일은 요즘 당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__ (1) 그렇다 __ (2) 그렇지 않다 __ (3) 잘 모르겠다

“점심 시간”

즐거운 점심시간, 수진이네 학교는 식당이 워낙 좁아서 빨리 가지 않으면 점심시간이 다 끝날 때에나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점심시간 중만 치면 모두들 전속력으로 식당으로 달려간다, 오늘, 하필이면 수진이네 반은 4교시 수업이 5분 쯤 늦게 마쳤다, 수진이는 가장 친한 친구인 정은, 지은이와 함께 서둘러 식당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이 줄을 서 있다, 마침 그 때, 그 줄의 중간쯤에 아주 친한 다른 반 친구인 채원이가 눈에 띄었다, 수진이를 발견한 채원이는 저 멀리서 손짓을 하고 있다, 여기로 오라고,,,, 그것은 수진이에게는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보였다, 채원이 옆으로 간다면 약 20분쯤은 빨리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밀린 과제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은, 지은이를 힐끗 보니 둘 다 그렇게 하자는 눈치다, 하지만, 줄을 서 있는 다른 애들 눈치가 보여서 망설이고 있는 수진이,,,,, 수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수진이의 선택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가능하다, 당신은 아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그런 상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3.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⑤	④	③	②	①
4. 정은, 지은이도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그건 내 책임은 아니다	⑤	④	③	②	①
5. 한번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6. 앞에 나가면 뒤처지는 애들에게 손해나 피해가 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 위의 “점심시간” 이야기는 흥미 있었는가? __ (1) 흥미 있었다 __ (2) 흥미 없었다
- 위의 “점심시간”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웠는가?
__ (1) 이해하기 쉬웠다 __ (2) 이해하기 어려웠다
- 만일, 당신이 수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__ (1) 앞으로 나간다 __ (2) 그 자리에 계속 서있는다 __ (3) 잘 모르겠다
- 이런 일은 요즘 당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__ (1) 그렇다 __ (2) 그렇지 않다 __ (3) 잘 모르겠다

"상재의 결정"

상재는 역사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수행평가 과제의 표절*을 찾는 작업을 도와드리기로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수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과제를 베꼈다는 사실을 상재에게 고백하면서 눈감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상재는 친한 친구인 동수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재는 표절을 찾는 작업 도중 별로 친하지 않은 강호의 과제에도 베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재는 고민 끝에 표절의 원칙은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동수와 강호의 과제 모두에 표절 판정을 내렸다.

* 표절(剽竊): 시나 글, 노래 등을 지을 때에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것.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번호	물 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에게 있어,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소중하다.	⑤	④	③	②	①
2	만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3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할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5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6	내 삶은 정말 좋고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공정하게 잘 해결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선생님에게 공정한 대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부서진 작품”

해니는 반 아이들에게 비난받는 윤서를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윤서는 축제 기간 동안 전시해 놓은 공예 작품을 부수고도 오히려 발뺌한다고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상시 윤서는 장난기 많고 덜렁거려서 종종 남의 물건을 망친 적이 있었기에, 공예 작품을 부순 사람으로 윤서가 지목된 것이다. 그런데 작품을 부순 것은 윤서가 아니라 바로 해니 자신이었다. 그 사실을 말한다면, 해니는 반 아이들을 속인 사람으로 찍혀서 남은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니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누명을 쓰고 비난 받고 있는 윤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반 아이들에게 사실을 고백하였다.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 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에게 있어, 해니처럼 자신의 일에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일은 소중하다.	⑤	④	③	②	①
2	만일 스스로 한 일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3	해니처럼 스스로 책임질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해니처럼 스스로 한 일에 대해 책임지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5	나는 해니처럼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6	내 삶은 정말 좋고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스스로 한 일을 자신이 꼭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버스 안에서 생긴 일”

일표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주와 함께 버스를 탔다.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기에 둘은 번갈아 앉으며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곧 사람이 꼭 들어차고 마침 동주가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가까운 곳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일표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 드리자고 말하자, 동주는 자신도 지쳤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일표는 그 할머니가 몹시 피곤해 보여 계속 마음이 쓰였다. 일표는 자신이 앉을 차례가 되자 할머니께 앉으실 것을 권했다.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번호	물 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에게 있어, 일표처럼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소중하다.	⑤	④	③	②	①
2	만일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나도 일표처럼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3	일표처럼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할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일표처럼 자신이 조금 지쳐도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5	나는 일표처럼 자신이 지쳐어도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6	내 삶은 마음에 들고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양보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자신이 지쳐있을 때는 꼭 자리를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동주의 행동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콘서트를 가다가”

현지는 오늘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오늘 저녁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그룹이 일 년 만에 콘서트를 재개하는데, 이 콘서트의 표를 간신히 구해서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콘서트장으로 가는 도중 버스를 갈아타려고 골목길을 막 돌아서려는 순간,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건너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더니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차에서 ‘깹~’하는 브레이크 소리가 났는데, 곧 그 차량은 그 자리를 떠나 가버렸다. 그리고 할머니는 건널목에 쓰러져 계셨다. 주변을 둘러보니 현지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목격하지 않은 것 같았다. 오늘따라 급히 서둘러 오느라 현지는 휴대폰도 가져오지 않았다. 콘서트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현지의 마음은 초조했다. 내가 만일 현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번호	물 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차량 주인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2	어떤 불편이나 손해가 생기더라도 내가 목격한 바를 말해야 된다.	⑤	④	③	②	①
3	콘서트를 볼 기회는 또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할머니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이런 경우 할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5	할머니를 돕기 위해 내가 경찰서에 갔을 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6	이런 일은 귀찮고 무서운 일이지만, 나는 이것이 할머니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겠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친구들에게 약속시간에 늦은 이유를 잘 설명하여 친구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어머니의 심부름”

진호는 체육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왜 그런지 발목이 아프다고 느꼈다. 걸을 수는 있지만 조금은 불편했다. 방과 후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 두 명씩 짝을 이루어서 진행되는 게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머니께서 급한 일이 생기셔서 8시까지 어린 동생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수 없으니, 진호에게 동생을 데려오도록 부탁하셨다.

이제 곧 8시가 된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하던 온라인 게임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편이 거의 다 이기고 있었는데, 내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게임에서 질 것이고, 기분이 나쁜 친구가 무척 화를 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8시를 넘겨서까지 게임을 하게 되면 어린 동생이 어린이집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될 것 같았다. 내가 만일 진호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 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될 것 같다.	⑤	④	③	②	①
2	심부름을 하는 것이 가족관계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3	발목이 불편하지만 시간에 맞춰서 어린이집으로 가겠다.	⑤	④	③	②	①
4	어머니의 심부름처럼 내게 맡겨진 일은 잘 하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5	지금 게임을 그만두고 동생을 데려와야 하는 이유를 친구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6	발목이 불편하므로 어린이 집에 가지 않겠다.	⑤	④	③	②	①
7	지금 당장 게임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에 어린 동생을 데리러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⑤	④	③	②	①

"PC방에서"

같은 반 단짝인 희수와 민이는 주말에 PC방에서 좋아하는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게임에 푹 빠져서 원래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컴퓨터 사용 요금을 내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희수는 민이에게 그만 가자고 말했다.

희수가 먼저 PC방에서 나왔고, 민이는 가방을 챙기고 뒤따라 나왔다. 그런데 뒤따라 나온 민이가 갑자기 희수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린 후 민이는 지갑을 하나 꺼내 들며, '옆 자리에 앉은 사람이 지갑을 빼놓고 화장실을 가서 집어 왔다' 고 했다. 고급 브랜드 지갑이었고, 지갑 안에는 만 원짜리 지폐가 수 십 장이 들어 있었다. 내가 만일 희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번호	물 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속상할 것 같기 때문에 지갑을 꼭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⑤	④	③	②	①
2	친구가 싫어하더라도 나는 친구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지갑 속의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동을 참아낼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4	물건을 잃어버려서 속상했던 내 경험을 말해주며, 언젠가는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주겠다.	⑤	④	③	②	①
5	이제는 밥을 사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겠다.	⑤	④	③	②	①
6	훈계하거나 비난하는 말투를 쓰지 않고, 차분하게 친구를 설득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선택한 대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연습보기〉

다음은 본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를 설명하는 A 학생이 작성한 〈연습보기〉입니다. 잘 읽은 후, 본 검사를 시작해 주세요.

“자전거 사기”	
철수의 아버지는 차로 30분가량 걸리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이 막히면 한 시간도 넘게 걸린다. 그래서 철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자전거를 하나 사서 회사도 다니고, 시장을 보거나 운동을 하는 데에도 사용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사려고 하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1) 만약 당신이 철수 아버지의 입장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자전거를 산다 (✓) ② 잘 모르겠다 () ③ 사지 않는다 ()

(2) 자전거를 사는가 안 사는가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해당란에 ✓표 하세요.)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살 것인가, 시내의 백화점에서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함)			✓		
2	오래 두고 볼 때, 새 것과 쓰던 것을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이득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됨.)	✓				
3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좋은 것을 살 것인가, 품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값이 싼 것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됨.)	✓				
4	엔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됨)					✓
5	짐 틀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커야 하는가? (이 질문은 ‘대체로 중요하게’ 생각됨)		✓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가장 중요한 질문의 번호 (3)

둘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2)

셋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5)

넷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1)

☞ 지시에 따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오.

“남편의 고민”

한 부인이 이상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암이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가까운 약국에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약국 주인은 그 약을 만드는 데 돈과 시간을 많이 쓰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약값을 아주 비싸게 요구했다. 그래서 남편은 약값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약 값의 반박에 벌지 못했다. 남편은 그 약국에 가서 주인에게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약을 반값에 주세요, 나머지 반값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약국 주인은 “미안하지만 안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다가, 약을 몰래 훔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1) 만약 당신이 이 남편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 ①훔친다 ②잘 모르겠다 ③훔치지 않는다

(2) 남편의 훔칠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이유가 무엇이든 법이 정한 일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2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그 약을 먹어도 아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에 갈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4	부모님이 도둑질은 나쁜 짓이라고 하셨으므로, 약을 훔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아내를 위해서 약을 훔칠까? 아니면 남편인 자신을 위해서 약을 훔칠까?	⑤	④	③	②	①
6	그 약을 만든 약국 주인의 노력과 고생도 중요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7	약을 훔치다 잡히면 감옥에서 오랫동안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8	아내와 남편은 각자 서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⑤	④	③	②	①
9	남편이 약을 훔친 것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알게 되면 화를 많이 내시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10	이럴 때,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1	약국 주인은 너무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나쁜니까, 도둑을 좀 맞아도 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12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탈옥수”

어떤 사람이 10년을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1년만 살다가 감옥에서 도망을 쳤다,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 자기 이름을 바꾸고 8년간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된 그는 양심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월급도 잘 주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어 훌륭한 부자로 유명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부인이 이 부자가 감옥에서 도망친 범인이라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아직도 그를 체포하려고 열심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인이 이 부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범인을 잡아서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될 것이다, 그 대신 그 부자의 회사는 망할 것이고, 더 이상 좋은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부인은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1) 만약 당신이 이 부인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 ①신고해야한다 ②잘 모르겠다 ③신고하면 안 된다

(2) 부인이 부자를 신고할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감옥에서 도망친 후 그가 한 8년간의 착한 일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2	감옥에서 도망쳐도 잡히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범인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벌을 다 받지 않고 감옥에서 도망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4	그 범인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 벌을 어긴 일은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그 부자를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이 했던 착한 일을 무시한 것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6	감옥에서 도망치다가 잡히면 더 큰 벌을 받으니까 도망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7	그 사람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얼마나 인정이 없고 나쁜 것인가?	⑤	④	③	②	①
8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벌을 받고 있는 다른 범인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9	이 사실을 알기 전에, 그 부인은 이 범인과 어느 정도 친한 사이였을까?	⑤	④	③	②	①
10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도망친 범인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1	한 사람의 생각과 다른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⑤	④	③	②	①
12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그 범인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인가?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환자의 애원"

어느 젊은 여자가 암에 걸려 6개월 밖에 살 수 없게 되었다. 이 암은 그 여자를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게 했다. 너무나 아프아서 그 여자는 정신을 잃기까지 한다. 강한 진통제를 주면 덜 아프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너무 강한 것이어서 환자를 오히려 더 빨리 죽게 할 염려가 있었다. 가끔 고통이 멈추었을 때 이 환자는 의사에게 조금 많은 진통제를 주어서 아픔 없이 죽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여자는 너무 아프서 참기도 힘들고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달라고 의사에게 울면서 부탁했다. 의사는 이 환자의 애원대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1) 만약 당신이 이 의사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이 환자의 애원을 어떻게 하겠는가?

- ①들어 준다 ②잘 모르겠다 ③들어주면 안 된다

(2) 환자의 애원을 들어줄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환자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2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통제를 주어서 사람이 죽게 되면 당연히 죄가 되는 것처럼, 의사가 그렇게 해도 똑같이 죄가 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느님이 용서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4	의사가 실수한 것처럼 일을 꾸며서 환자의 부탁을 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나라의 법에 스스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을 죽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6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배우지 않았을까?	⑤	④	③	②	①
7	의사는 환자를 덜 아프게 해주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할까?	⑤	④	③	②	①
8	사람이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주는 일이 때로는 더 좋은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9	오직 하느님만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0	의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일을 해야 할까?	⑤	④	③	②	①
11	어떤 사람이 스스로 죽고 싶어 할 때, 법은 그 사람이 스스로 죽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12	사회는 자살을 허락하면서, 동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두 가지의 반대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8

2차년도 도덕적 감수성 문항 구성 체계

딜레마 스토리이름*	문항갯수	하위요소	역코딩 갯수	허위반응 체크문항 갯수	배 점
점심 시간	18개	상황지각, 결과지각, 상황지각	3개 (하위요소별1개)	3개 (하위요소별1개)	각 문항별 3점 (15개×3점)
수행 평가	18개	상황지각, 결과지각, 상황지각	3개 (하위요소별1개)	3개 (하위요소별1개)	각 문항별 3점 (15개×3점)
계	30개	3종류	6개	6개	90점

* 1차년도 요인분석결과 부적절문항으로 판명되었거나 흥미도(도덕적 감수성 국한)가 낮게 나타났을 경우, 이를 배제하고 2개만 선정함. 단 두 번째 선정된 딜레마가 첫 번째 것보다 상당히 낮은 지지를 보일 경우, 예비스토리를 준비해두었다가 2차년도 사전조사에서 딜레마의 흥미도를 별도로 측정하여, 그에 부합하는 본 조사 문항을 제작함.

Abstract

A Preliminary Study on making Tool for the Moral Sensitivity Test for Korean Youth

KYMT is developed to measure youth morality based on the four component model's factor: moral sensitivity, moral judgment, moral motivation, and moral character.

Moral sensitivity is as in the following.

This research aimed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ool to measure the moral sensitivity of Youth. The moral sensitivity refers to the capability which it corresponds to the first component among 4 component model which J. Rest suggested, and it is well conscious of the moral problem that it is contained in the certain aspect, it interprets the situation, and can count in advance whether its own action has any kind of effect an effect on the others.

The past researches pertaining to do the moral action has suggested fact perception sensitivity, consequence perception sensitivity, and responsibility perception sensitivity as the sub-factor of the moral sensitivity. Then this research implemented these three factors in the three moral conflict dilemma stories. To verify reliability, removing the false respond needs two levels. At the much higher condition, the internal consistency was highly shown up as 0.84. In the preceding research,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verification of already clarified three sub-factors. Consequently, because relatively one dilemma had the aberrant item much, it was removed. The level of understanding and interest were also good.

In the subsequent study, in order to supplement the limitation of this research, it is very necessary to remake the dilemma story extensively, complement the principle of constructing dilemma, will show the well-organized questionnaire on moral sensitivity.

Key Words: Morality, Youth Morality, Korea Youth Morality Test(KYMT),
The Four Component Model, Moral sensitivity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교·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윤숙·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윤숙·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혜연·유성렬·박은미
-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오해섭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 · 김소희 · 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창욱 · 임영식 · 이인재 · 박균열 · 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 · 홍성훈 · 서규선 · 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 · 김남준 · 김항인 · 류숙희 · 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 · 변순용 · 김국현 · 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 · 김남준 · 김항인 · 류숙희 · 윤영돈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총괄보고서 / 안선영 · 김희진 · 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 · 정해숙 · 마경희 · 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취약위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 · 박건 · 권영인 · 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인재 · 모상현 · 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 모상현 · 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김지은 · 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 ·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 · 김영문 · 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 · 박수익 (자체번호 11-R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장근영 · 박수익 (자체번호 11-R2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 · 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수 시 과 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 · 김희진
- 11-R15 한 · 중 · 일 · 미 교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 · 임희진 · 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 · 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 · 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 · 맹영임

수 탁 과 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 · 최창욱 · 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익 · 손의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영한 · 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혜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교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 · 장근영 · 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 · 이해연 · 황옥경 · 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예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 11-R46 성인 · 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 II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 · 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 · 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무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 II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 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63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아동 · 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 · 중 · 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 · 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연구보고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 연구I : 도덕적 감수성

인 쇄 2011년 12월 21일

발 행 2011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975-2

978-89-7816-973-8(세트)